

高麗時代『密教大藏』卷9의 書誌의 研究*

A Bibliographical Study of Milgyodaejang(密教大藏) Vol.9

남 권 희 (Nam, Kwon-Hee)**

◁ 목 차 ▷

- | | |
|----------------------|-------------------|
| 1. 머리말 | 5.1 持心梵天所問經 4卷 |
| 2. 守國寺 腹藏遺物 | 5.2 思益梵天所問經 4卷 |
| 2.1 守國寺의 역사와 腹藏遺物 | 5.3 勝思惟梵天所問經 卷第6 |
| 2.2 腹藏遺物의 개관 | 5.4 [入]楞伽經 卷第8 |
| 3. 『密教大藏』 관련 기록 | 5.5 大乘入楞伽經 卷第6 |
| 3.1 고려시대 13-14세기의 밀교 | 5.6 大雲輪請雨經 卷上 |
| 3.2 史料上의 密教大藏 기록 | 5.7 大雲經請雨品 第64 |
| 4. 『密教大藏』 권9의 書誌 | 6. 大藏目錄 下卷 溪函-洞函에 |
| 4.1 형태와 체제 | 수록된 陀羅尼經 |
| 4.2 수록 범위 및 기술 | 7. 맺음말 |
| 5. 수록 내용의 분석 | <참고문헌> |

< 초 록 >

이 연구는 고려 불교사에 있어서 문헌기록으로만 전해지던 『密教大藏』 90권 가운데 권9(와 권61)의 실물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 자료를 서지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으로 특히 再雕大藏經과의 관련성에 대해서 비교·검토한 것을 중심으로 다음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밀교대장』 권9는 전체 14丈의 蝴蝶裝 형태로 각 장은 전체 30행을 8/7/7/8행으로 구분하여 접은 형태이며 한 행은 15자로 배열하였다. 본문의 순서는 수록경전의 제목, 합차, 저자사항과 주문의 제목에 이어 悉曇字行과 漢字音行을 병기시켰으며 권말에는 音義가 있으나 주로 音을 反切로 표기하였다.

둘째, 기록상 이 자료는 각종 사료에 나타난 『密教大藏』 90권에 해당하고 추가된 40권의 사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셋째, 본문 중 제9장에는 ‘白如刀’라 하여 각수명이 작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나 재조대장경의 각수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넷째, 수록된 경전은 대장경의 천자문 합차에서 141번째 ‘賴’, 142번째 ‘及’, 147번째 ‘身’, 148번째 ‘髮’, 150번째 ‘大’函에 걸쳐 해당한 진언부문을 수록하고 있다.

다섯째, 해당된 진언부문을 再雕大藏經과 비교하면 悉曇字의 부분은 재조본에 없으며 이는 당시

*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경북대학교 사회과학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khnam@knu.ac.kr)

접수일: 2014년 5월 20일 최초심사일: 2014년 6월 10일 심사완료일: 2014년 6월 25일

에 통행되던 판본이나 필사본류를 저본으로 등재본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구체적으로 표제도 제조본과는 달리 축약형으로 표현되어 있다.

여섯째, 한자음 표기에 기입된 구절구분표시, 장단음을 비롯한 성조표시, 그 밖의聲韻에 관련된 표시 등이 있으며 이는 五大眞言의 고려본이나 조선본(한글병기)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密教大藏』 권9의 서지적 검토를 통해 13-14세기 고려 불교사에서 중심적 사상이었던 밀교의 영향이 집약된 총서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를 살펴볼 수 있었다.

要語: 『밀교대장』 권9, 재조대장경, 실담자, 진언

<ABSTRACT>

This research had covered the esoteric Buddhism book *Milgyodaejang* vol.9, which has not been revealed to the public yet. As it was the first time being observed thoughtfully, it had been investigated via bibliographical standpoint.

Accentuating on the correlation between the Tripitaka Koreana and *Milgyodaejang* vol.9 in comparative reviews, following facts were discovered:

1. *Milgyodaejang* vol.9 was composed of 14 woodblocks, similar to shapes of butterfly wings. Each block was arranged in 30 lines and 15 letters per line. The content of the book was written in following order; Buddhist scripture, ordinal letter, the author, Siddham(悉曇) and Chinese transliteration.
2. This book is regarded as a part of *Milgyodaejang* series that were made of 90 volumes in Goryeo Dynasty. According to records, 40 volumes of gold-written type were additionally added to *Milgyodaejang* series, as total of 130 volumes. However, the additional 40 volumes had not remained to the present.
3. The signature of engraver 'Backyeodo(白如刀)' was spotted in page 9 of *Milgyodaejang* vol.9, but not in Tripitaka Koreana.
4. *Milgyodaejang* vol.9 covers 141th letter to 150th letter in Tripitaka Koreana which are 'Rey(賴), Geup(及), Sin(身) and Dae(大).'
5. Comparing Siddham alphabets used in *Milgyodaejang* vol.9 and Tripitaka Koreana, some of the alphabets used in *Milgyodaejang* vol.9 were not included in Tripitaka Koreana, which implies that *Milgyodaejang* vol.9 was referenced by other books than Tripitaka Koreana.
6. Chinese alphabets were written in various ways; break-point mark, long or short sound marking, and intonation marking. Same patterns of alphabets were also found in *Odae Jinun*(五大眞言) written in Chosun dynasty.
7. Taking into account of the publication date of Tripitaka Koreana and records in *Ikjaenango*(益齋亂藁), the publication date of *Milgyodaejang* volume 9 is presumably around late 13c to early 14c.

By identifying these following facts through bibliographical examination, the true worthiness of *Milgyodaejang* vol.9 has been unearthed.

Key words: *Milgyodaejang* vol.9, Tripitaka Koreana, Siddham alphabets, Dharani

1. 머리말

이 연구는 고려 불교사에 있어서 문헌기록으로만 전해지고 있는 『密教大藏』의 실물이 확인됨에 따라 대상 자료의 형태서지적인 측면과 원문의 구조를 밝히고 성립에 대해 再雕大藏經과의 관련성을 비교·검토하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불교사에 있어서 대장경이란 經, 律, 論의 三藏을 통칭하여 부르고 있으며 ‘密教大藏’이란 용어도 구체적인 언급은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밀교와 관련된 문헌의 집대성 정도로 추정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확인된 실물은 포괄적인 유형에 대한 일반명사로서의 密教大藏이 아니라 고유명사로서 특정화된 제목으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번에 공개되는 『밀교대장』 권9와 권61은 그 형태적인 특징도 같으며 본문의 체제와 기술의 형식도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책의 장정에 있어서 권9는 변형된 蝴蝶裝의 형태이며 권61은 折帖本의 형태를 지니고 있음으로 두 책이 서로 다른 시기에 다른 주체에 의하여 조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밀교대장』에 관련된 선행 연구들 중 실물 寫經과 李齊賢의 『益齋亂藁』 기록 등에서 처음 90권으로 편찬된 것에 40권을 더하여 130권으로 사경하여 편성되었다는 사실과 관련된 전래 사실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 기록상 忠肅王 시기에 金字寫經으로 조성된 『밀교대장』이 現世祈福의인 차원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고 그 사상사적 배경을 밝히는 논문들과 金字院이나 銀字院 등 寫經院에서 이루어졌던 사경작업과 연관하여 연구한 글들이 있다.

본 연구에서 검토되는 90권으로 이루어진 목판본 『밀교대장』과 재조대장경과의 관계에 근거하여 함차를 분석해보면 이를 바탕으로 추가된 40권이 累加的인 것인지 90권 중에 삽입된 것인지를 추정하는데 근거를 제시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守國寺 腹藏遺物

2.1 守國寺의 역사와 腹藏遺物

守國寺는 서울 은평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창건과 관련되어서는 조선 세조가懿敬世子가 즉자 이를 애도하면서 지은 절로 당시의 사명은 正因寺이다. 仁粹大妃 때에 이르러 건물을 109칸으로 늘이고 곡식을 지원하였으며 대승의 여러 경전을 간행하였다는 기록이 金守溫이 지은 創建記¹⁾에 수록되어 있다. 이후 숙종 때 인현왕후의 명복을 빌기 위하여 중수하였고 敬陵, 昌陵, 明陵, 翼陵, 弘陵의 西五陵²⁾과 관련이 깊은 사찰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중수 이후의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19세기 말에는 이미 폐허가 되었다가 1900년 가을에 月初巨湍(1858-1934)이 왕실과 신도들의 도움으로 중창하게 되었다.³⁾

수국사의 대웅전에는 후불탱화와 함께 아미타불 목불상 한 구가 안치되어 있다. 근자에 이 불상의 腹藏에서 고려 및 조선시대의 유물이 다량 발견되었으며 그 중에는 경전과 다라니류 및 喉鈴筒과 관련된 천, 향, 약, 오곡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불상에서 발견된 改金記에는 洪武 22年(1389) 7월에 무량수여래, 관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개금하였으며 또 다른 조선시대 개금기인 嘉靖 41年(1562)⁴⁾ 8월에 아미타불 개금 기록과 복장물 등에 의하여 13세기 중엽 이후에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⁵⁾ 그러나 이 불상이 수국사에서 전존되어 온 것이 아니라 1562년 8월에 개금시 납입한 경전 중 『藥師經』과 『妙法蓮華經』에서 “嘉靖二十

1) 權相老, 『韓國寺刹全書』 下, ‘正因寺’; 『退耕堂全書』 권2 (서울: 퇴경당권상로박사 전서간행위원회, 1998), 297-299.

2) 경릉은 소혜왕후, 창릉은 예종과 안순왕후, 명릉은 숙종과 인현왕후의 쌍릉과 인원왕후 단릉의 합칭이며 익릉은 숙종의 비인 인경왕후, 홍릉은 영조의 비인 정성후의 릉이다.

3) 사찰문화연구원 편, 『서울의 전통사찰』 (서울: 동연구원 출판국, 1994), 262.

4) 원문의 기록은 ‘嘉靖四十二年壬戌有 …’이나 壬戌의 간지 그 전 해인 41년 즉 1562년에 해당한다.

5) 문명대, “守國寺 高麗(1239년) 木阿彌陀佛坐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제255집(2007), 63.

年辛丑日 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原寺”라는 1541년 간행기록과 “嘉靖四十二[ie 四十一]年壬戌八月日 熙暹施納” 등의 기록에 의하여 철원의 심원사에 모셨던 불상을 옮긴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러한 불상의 조성과 전래 내력은 이미 선행 연구⁶⁾에서 자세히 언급되어 있으므로 여기서는 줄인다.

이와 같은 복장물 중에서 특히 고려시대 간행으로 추정되는 경전들과 다라니류는 물론 중국 元代의 적사관 대장경으로 추정되는 『阿毗達摩大毗婆沙論』 등이 복장의 시기를 추정하는 단서를 제공하며 발견된 개금기의 기록시기인 1389년 이전에 간행·전래되어 불복장에 안치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본 연구의 주 대상인 『밀교대장』과 관련된 다라니류의 경전이 많으며 책의 형태는 절첩본으로 간행시기는 고려시대로 추정된다. 더불어 현재까지 알려진 고려 만다라 다라니 및 보협인다라니 등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다라니가 다수 발견되어 간본류와 더불어 시기적으로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중 예를 든다면,

<절첩 및 권자본 형태 서책류>

- ①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절첩본
- ②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 절첩본
- ③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 절첩본
- ④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舍利根本一字陀羅尼經, 권자본 일부

<날장 다라니류>

- ①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1圓, 날장
- ②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諸佛菩薩摩訶字合部二輪 陀羅尼, 4圓(1金剛界만다라), 날장
- ③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四件都合印 陀羅尼, 4圓, 날장
- ④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1圓, 날장
- ⑤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 1圓, 날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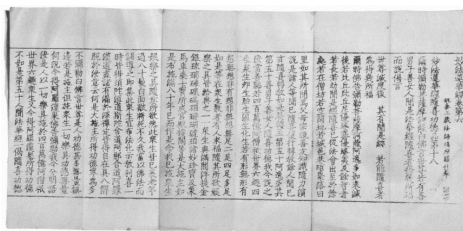
6) 문명대(2007), 37-40. ; 崔聖銀, “瑞山 開心寺 목조아미타불좌상과 고려 후기 불교조각,” 『한국의 사찰문화재(학술세미나논문집)』 (서울: 조계종 문화유산발굴조사단, 2007), 28-29.

- ⑥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諸佛菩薩摩訶字合部二輪 陀羅尼],
4圓(1金剛界만다라), 날장
- ⑦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真言諸佛菩薩摩訶字合部二輪 陀羅尼],
2圓(1金剛界만다라), 날장
- ⑧ [寶呪],⁷⁾ 날장
- ⑨ [圓相 만다라진언], 날장
- ⑩ [圓相 진언], 날장

등이 함께 납입되었던 것으로 밀교적인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1> 守國寺
木造阿彌陀如來坐像



<그림 2> 妙法蓮華經 卷6



<그림 3>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

7) 허일범, 『한국 밀교의 상징세계』 (서울: 진각종 해인행, 2008), 170.

寶呪: 자비와 지혜의 상징표현으로 불도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부처의 자비와 지혜광명이 함께 하기를 기원한다는 뜻이며 한 개의 보주를 6개로 나눈 것은 육도중생을 구제하겠다는 상징이며 도육자진언의 대응이라 볼 수 있다.

2.2 腹藏遺物の 개관⁸⁾

2.2.1 서적류

1) 金剛般若波羅密經[五家解], 卷下(1457년)

크기 36.7×23.8cm에 판본은 丁丑字本으로 포배장본이다. 그 간행은 永膺大君, 金守溫이 發願에 참여하였으며, 인쇄상태가 선명하고 정교하다.

2) 妙法蓮華經 卷6(고려)

절첩본으로 한 면당 6행 17자이며 匡高 16.7cm로 인쇄상태가 좋다. 뒷면에 ‘祖仁施納’이라는 시주자 표시의 목서가 있다.

3) 妙法蓮華經 卷1-7, 2책(1422년 간행, 1562년 시납)

크기 28×16cm, 半匡 21.4×13.5cm의 목판본으로 大功德主인 孝寧大君이 1422년 간행에 참여하였고 卞季良과 涵虛堂 得通和尚의 발문과 권수에 1562년 개금 때 쓴 ‘嘉靖四十二年 壬戌八月初八日 施納 比丘能惠’의 목서가 있다.

4) 妙法法華經 1-7卷, 2冊(1541년)

크기가 30.2×18.8cm인 목판본이며 내용으로 大施主는 姜希亨이고, 寶蓋山 深原寺(철원)에서 간행되었다. 시주와 관련한 목서로 ‘嘉靖二十年 辛丑 江原道 鐵願地 寶蓋山 深願寺’와 권수에 ‘性仁比丘’가 있다.

5) 五大眞言集(1485년)

크기 25.3×17.3cm, 半匡 18.1×12.6cm의 목판본이며, 한 면당 8행 14자이다. 발문에는 學祖의 1485년 發願과 권말 목서에는 ‘嘉靖四十二年 壬戌八月初八日

8)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서울특별시 2』(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177-197.;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서울특별시 자료집』(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168-171.

施納 比丘能惠'의 1562년 개금 때의 기록이 있다.

6) 地藏菩薩本願經 中卷(세종연간)

크기 32.2×18.8cm, 半匡 22.2×14cm인 목판본이며 孝寧, 安平大君의 發願으로 간행되었다. 권말 목서로 '嘉靖四十二年 壬戌八月初八日 比丘熙暹'의 1562년 熙暹 施納의 기록이 있다. 판본은 원래 5행 17자의 절첩본에서 線裝本으로 변화하는 양식을 보여주며, 上下單邊, 有界에 저본의 全匡은 24행이다.

7) 阿毗達磨大毗婆沙論 卷17, 18, 144-146(6첩, 14세기 元版大藏經)

크기 30.5×11.3cm, 匡高 24.4cm인 목판본으로 절첩본 형태이다. 上下單邊에 無界이며 全匡 30행 17자로 변상도가 있다. 권17의 뒷면에 '中德 前光明住持 戒祥'의 목서가 있다. 합차 표시는 서명 하단에 '造七, 八, 退八' 등으로 나타나 적사판대장경으로 추정된다.

8)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14세기)

크기는 24.8×19cm이고, 匡高는 16.9cm인 목판본으로 절첩본 형태이다. 上下單邊에 無界이며 全匡 30행 17자이다. 권수의 3면에 걸쳐 禮拜圖變相이 있으며 표지의 '性仁施納' 목서로 미루어 1562년에 시납된 것으로 추정된다.

9) 蓮經別讚(1524년)

크기 26.8×18.3cm의 목판본으로 경상도 문경 雙龍寺에서 1524년에 개판하였고 性仁比丘가 시납한 것으로 볼 때 1562년에 시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지는 고려 금은자사경과 동일한 金泥華文이 그려진 표지인데 고려 금자사경의 표지를 사용한 것인지 이 책을 위해서 별도로 제작한 것인지는 불명확하나 製冊한 상태로 보아서는 훼손된 금자사경 표지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四周單邊에 無界이며, 半葉 8행 16자로 上下大黑口, 上下內向黑魚尾 형태이다. 권말 간기에는 '嘉靖三年甲申仲春有日慶尙道聞慶地 華山雙龍寺開板'이 새겨져 있다.

10) 蒙山和尚法語略錄[諺解](1525년)

크기 29.8×19.8cm의 목판본으로 1525년에 황해도 深原寺에서 개판하였으며 大施主 昌敏, 刻手, 義安과 義浩의 기록이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有界이며 半葉 8행 17자에 주쌍행으로 上下內向黑魚尾와 大黑口가 혼재하는 형태이다. 권말 간기에는 ‘嘉靖四年乙酉五月日 黃海道黃州地 慈悲山 深原寺開板’이 나타나 있다.

11)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 2冊(1528년 간행, 1541년 인출)

크기 29.1×19.2cm의 목판본으로 1528년 廣州 奉恩寺에서 개판하였으며 목서로 1541년 深源寺라는 기록과 더불어 1562년 熙暹이 施納한 목서로 미루어 인출과 복장의 시기를 나누어 볼 수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 有界, 半葉 9행 15자,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이다. 御製序의 시기는 ‘天順三年十一月十一日’이며, 권말 간기에는 ‘皇明嘉靖七年五月日 京畿左道廣州地 奉恩寺開板’이 있고 권말 목서에는 ‘嘉靖二十年辛丑日 江原道鐵原地寶蓋山深源寺’가 있다. 그리고 裏面 墨書에는 ‘嘉靖四十二年壬戌八月日熙暹施納’이 쓰여있다. 이 책의 판본과 유사한 양식을 지닌 『妙法蓮華經』에는 刊經都監에서 활동한 유명한 각수들인 ‘張莫同’, ‘李永山’ 등이 나타나고 金守溫의 발문이 있는 점과 御製序文이 천순연간인 점으로 미루어 이 판본의 저본도 세조연간에 간행된 판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2) 大方廣佛華嚴經 卷36(14세기)

晋本 화엄경이며 크기 32.3×12.4cm, 半匡 23.8cm의 목판본으로 全葉 24행 17자의 배열과 장정은 절첩본 형태이다. 권말에는 音義가 있고 절첩의 한 면은 6행이다.

13)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14세기)

크기 24.8×8.8cm, 匡高 16.4cm의 목판본으로 장정은 절첩본 형태이며 표지에 ‘性峻’이라는 목서가 있다. 판식은 上下單邊에 無界로 全葉 30행 12자이며 한

면은 5행에 실답자와 한자음이 병기되어 있다. 의식과 관련된 중요한 불경으로 중시된다.

14) 佛說摩利支天菩薩陀羅尼經(14세기)

크기 20.6×9.2cm, 匡高 14.4cm의 목판본으로 판식은 上下單邊, 無界, 全葉 25행 13자의 배열과 한 면은 5행의 형태이다. 이면 묵서에 戒當印納이 있다.

15) 預修十王七齋儀纂要(1577년)

크기 34×23.5cm, 半匡 20.4×17cm의 목판본으로 1577년 충청도 瑞山 普願寺에서 개판하였고, ‘雍正四年 丙午’라는 묵서로 이때 복장에 봉안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즉 1562년 이후 불상개금이 한번 더 이루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판식은 四周單邊에 無界로 半葉 8행 16자이고, 上下大黑口에 上下內向黑魚尾의 형태이다. 권말 간기에는 ‘萬曆五年丁丑季夏○日 忠清道瑞山地 伽倻山普願寺留鎮’과 권말 묵서에는 ‘黃河水天上來 / 擁正四年丙午十二月初二日地動 / 可也信智之可也 / 擁正四年丙午十二月初二日卯時初 / 地動可也信智可也 / 東方青瑠璃世界普’라고 기록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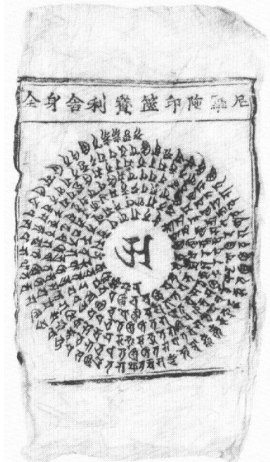
16) 大方廣菩薩藏經中文殊師利根本一字陀羅尼經(고려시대)

전체 중 제2장의 1장만 남아 있으며 匡高 9.7cm, 全葉 40행 12자에 板首題는 ‘一字’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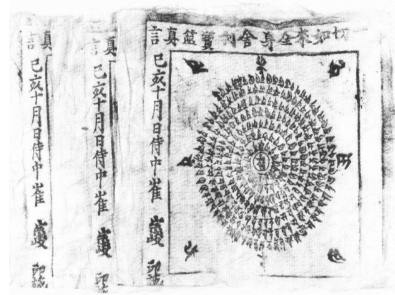
17) 密教大藏 卷9 ; 본 연구 대상본

2.2.2 陀羅尼類

1) 有題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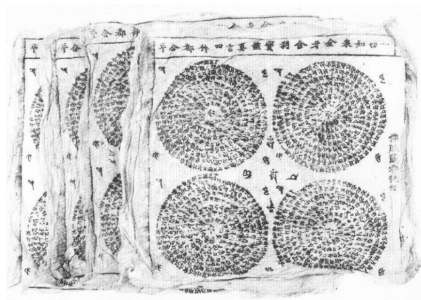
(1)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
날장, 크기 20×15.2cm, 목판본



(2)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陀羅尼
크기 16×17cm, 목판본(123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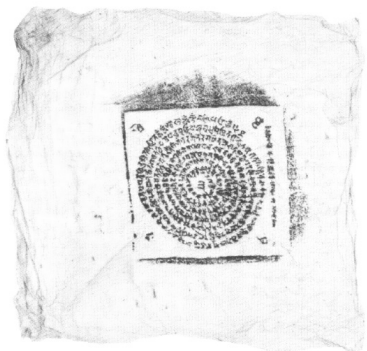


(3)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諸佛菩薩摩訶字合部二輪 陀羅尼
크기 29×30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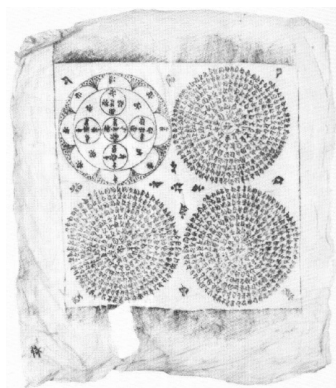


(4) 一切如來全身舍利
寶篋眞四件都合印 陀羅尼
4매, 크기 37×39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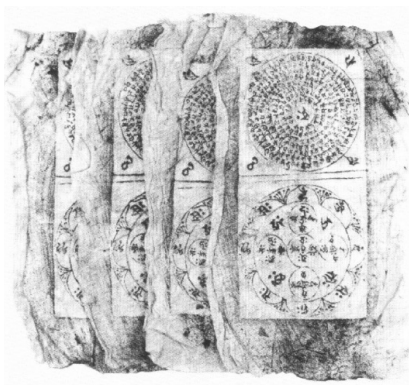
2) 無題類: 목판 인출의 각종 다라니와 만다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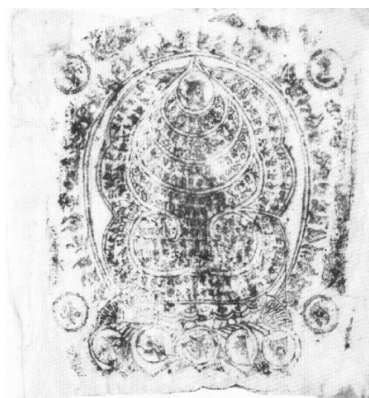
(1) 陀羅尼
15.5×17cm 1매, 1圓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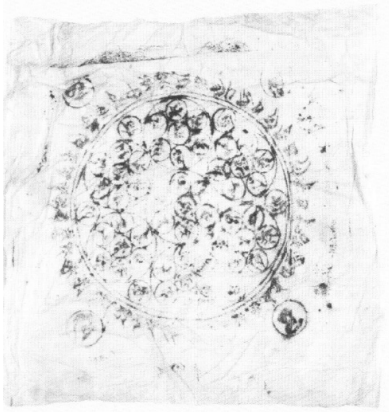
(2) 陀羅尼
25.5×25cm 1매, 4圓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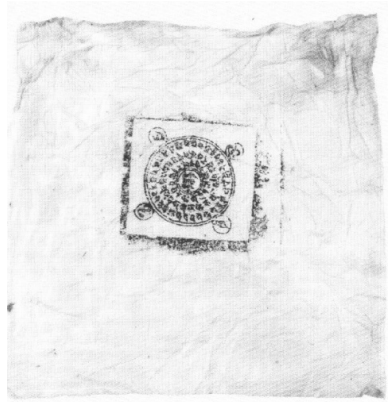
(3) 陀羅尼
10.3×5cm 4매, 2圓 형태,
金剛界, 胎藏界



(4) 陀羅尼
33×31.3cm, 1매



(5) 陀羅尼
33×34cm, 2매



(6) 陀羅尼
10×11cm, 1매, 1圓

2.2.3 기타 유물

1) 造成改金發願文

(1) 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1239년) ; 크기 16.5×20cm, 3매

- 내용: 一切如來全身舍利寶篋眞言
- 간기: ‘己亥十月 日 侍中 崔宗峻 印施’의 기록

이 기록과 관련하여 崔宗峻(?-1249)⁹⁾은 『東國輿地勝覽』鐵原都護府 ‘人物條’에서 최씨 집안이 상세하게 언급되어 있으며 이 불상이 철원의 深源寺에서 전래된 것임을 미루어볼 때 불상조성에 관여된 인물이라 추정된다. 최씨 가문은 무신정권과 대몽항쟁기간에 막강한 위치에 있었고 이후 철원(별칭 昌源)지역에

9) 최종준의 祖는 崔惟淸(1095-1174), 父는 崔訖으로 高宗때의 문신이며 1201년에 문과 장원을 거쳐 吏部尙書, 門下侍中에 올랐다. 이 자료에 의하여 1239년에는 侍中의 자리에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 영향력을 행사하던 집안으로 심원사의 중수에 참여했을 것이다.

(2) 洪武 22年 改金記(1389년) ; 크기 25×20cm, 사각형

- 내용: 무량수불과 관음보살, 대세지보살을 개금함
- 전문: 洪武二十二年己巳七月二十三日 起始 無量壽如來 金伍束 三貼
泥金五錢 觀音菩薩 金三束一貼 泥金二錢 大勢至 菩薩 金三束三貼
泥金二錢 八月初五日紅錦綵坐子 進呈 安坐 化主智識幸 施主前開
城[Ⅱ] 寧越郡夫人辛氏 …

(3) 嘉靖 42年 改金記(1562년) ; 크기 18×20cm, 사각형

- 내용: 무량수불을 개금함
- 전문: 嘉靖四十一年壬戌九月日發願文 … 大施主 愼思智 …

(4) 嘉靖 41年 發願文(1562년) ; 크기 96.5×30cm, 직사각형

2) 腹藏 舍利

(1) 舍利 7과 ; 크기 0.2cm

(2) 후령통과 부속 ; 길이 11.4cm, 직경 1.4cm, 원통형

(3) 황금색 후령통 보자기 ; 크기 15×16cm, 사각형

(4) 구슬 3점 ; 청색 0.9cm, 흰색 1cm, 붉은색 0.8-0.4cm

(5) 황금색 방울 3점 ; 크기 2cm

(6) 五藥, 五香, 五穀 등과 五寶瓶은 노란 보자기에 싸여 노출됨

3) 옷과 직물

(1) 모시저고리(적삼) ; 크기 128×50cm, 金氏保体の 묵서

(2) 삼베(안동포) ; 크기 54×35.5cm, 慈恩加伊瑜의 묵서

(3) 삼베 ; 크기 714×32cm, 1필, 性仁施納의 묵서

- (4) 삼베실 4몽치
- (5) 모시실 1몽치
- (6) 오색실(명주) 1몽치
- (7) 보자기 ; 크기 30×12cm, 19점, 織金羅가 포함
- (8) 직물 ; 10점, 크기 10.5×7cm
- (9) 명주 ; 1점, 크기 90×15cm, 英畚茶方石伊佛好加目大難金の 묵서

4) 금박 묵서류

- (1) 금박종이 ; 크기 9.6×9cm
 - (2) 묵서종이 ; 크기 5.6×5.6cm, 삼각형 5매, 내용은 묵서로 丁敎善, 於大伊가 적힌 2매, 仃伊 2매
 - (3) 묵서 종이몽치 ; 20매
- 내용은 묵서 ‘嘉靖四年二年壬戌八月初八日還座’

5) 근현대 복장품

- (1) 사리병 등
- (2) 감은사사리기형 사리기는 전 주지 제작 봉안

3. 『密教大藏』 관련 기록

3.1 고려시대 13-14세기의 밀교

고려는 건국초기부터 불교가 국교로 유지되면서 호국불교와 민중신앙이 결합되어 국가적인 道場佛事의 행사가 밀교적 법회로 이루어졌고 이 때 所依經典으로 다라니경들이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고려후기에 무신정권과 元의 지배하에 들어서면서 사회가 불안해지고 민심은 현학적인 교리체계나 禪 수행보다는 呪術

的이고 神異的인 신앙에 의해 安心立命 신앙 형태를 띠게 된다.

고려 후기 불교의 특징 중 두드러지는 현상은 불교사상에 있어서 토착적인 神秘思潮 내지 民衆中心, 地方中心의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13세기 후반 고려는 내부의 혼란과 몽고의 압박 등으로 인해 불교제도 僧政이 抗蒙과 親蒙 세력이 갈등하고 종파간의 난립을 초래하던 시기였다.

12세기에 주도적이었던 敎宗이 위축되었고 대신 조계종과 천태종이 세력을 확장하였으며 고려 중기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持念業(神印宗), 律業(南山宗), 芬皇宗(海東宗), 小乘業 등이 종파로 성립되었다.¹⁰⁾ 이 중 신인종은 呪術에 속하는 文頭婁秘法에 의하여 국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사상으로 호국적인 성격이 강하고, 지님업은 개인의 질병에 대한 구원을 기원하는 개인차원의 밀교로서 자리 잡았으며, 분황종은 원효의 민중교화가 강조된 민중불교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다. 이와 더불어 지방 불교적인 성격도 나타나고 민중과 결합된 結社運動, 神異的 요소를 지닌 사상이 널리 퍼지게 되었다.

이러한 내적 요인과 더불어 元과의 교류 등에 의한 외부적 요인에는 밀교적 색채가 강했던 遼나라 불교의 영향도 적지 않았다. 그 중 대각국사 의천의 敎藏에는 覺密, 思孝, 法悟, 志福 등 遼의 승려가 저술한 13부 56권 등이 포함되어 있고 그의 문집에서 그의 승려들과 주고받은 문헌에 대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종합적인 관점에서 고려 밀교의 특징은 不空에 의하여 완성된 金剛部和 胎藏部の 正純密敎,¹¹⁾ 그리고 華嚴, 禪, 淨土思想에 밀교의 陀羅尼 사상이 융합된 宋과 遼의 밀교사상이 합쳐진 복합적인 성격의 밀교라 할 수 있다.¹²⁾

이와 같은 내·외적인 영향 아래 고려시대 밀교 문헌은 개별적인 간행본 외에도 대표적으로 재조대장경에 포함된 밀교경전도 적지 않다. 즉 唐代의 善無畏

10) 許興植, 『高麗佛敎史研究』(서울: 一潮閣, 1986), 458.

11) 다라니는 원시불교에서 수행자를 옹호하고 재난을 제거하기 위하여 쓰였지만 불교의 발달과 함께 진언 다라니 사상으로 점차 심화되어 결국에는 여래의 眞說佛敎, 正純密敎라 칭하게 되었다. 반면 제종의 神呪, 呪術法 등으로 消災招福하는 세간적 願望의 성취를 목적으로 하는 밀교를 雜部密敎라 칭한다. 홍윤식,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서울: 만다라, 1995), 126.

12) 종석, 『밀교학개론』(서울: 운주사, 2002), 243-244.

5부 17권, 金剛智 8부 11권, 不空 109부 152권 등 純密에 속하는 122부 188권의 譯出經을 비롯하여 宋代의 天息災 19부 58권, 施護 115부 258권, 法天 44부 73권, 法賢 56부 91권 등의 밀교 승려들에 의한 譯出經과 遼代의 『釋摩訶衍論』까지 수록되어 있다.¹³⁾ 이 중에서 선무외의 5부와 금강지의 4부(七俱胝大明陀羅尼, 金剛頂念誦經, 金剛頂經, 觀自在瑜伽法要)는 대장경의 순서를 경전별 기준으로 볼 때 주로 400번째 부근에 분포되어 있고, 금강지의 역경 일부와 불공의 역경들은 대개 1268-1380년 대에 집중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선행연구에서는 『초조대장경』 때는 천식재, 법천, 법현, 시호 등의 166부 276권이 조성되었고 재조대장경에서는 초조 때 빠졌던 법천과 시호의 역출경전 68부 204권이 조조되었을 것¹⁴⁾으로 추정하였다.

고종 대에 간행된 고려 재조대장경에 포함된 밀교경전은 총 191종 356권에 달하고 이 중 다라니경류가 168종 256권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그밖에 『大日經略攝念誦隨行法』 1권을 비롯한 밀교의식의 작법에 관한 것도 20종 21권이 포함되어 있다.¹⁵⁾

이러한 대장경에 수록된 경전 이외에도 고려시대에는 별도의 독립된 밀교경전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楞嚴經』을 비롯하여 한문 경전은 물론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되는 悉曇字 표기의 경전도 다수 유통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존하는 陀羅尼나 실물 문헌자료에서도 그러하지만 대장경에서 한자의 이표기와 합성방법으로 표기된 진언이 『밀교대장』에서는 실답자로 수록되었다는 것은 당시에는 梵本 내지 실답자 표기가 併記된 문헌이 전반적으로 유통되었다고 볼 수 있다.

13) 종석(2002), 2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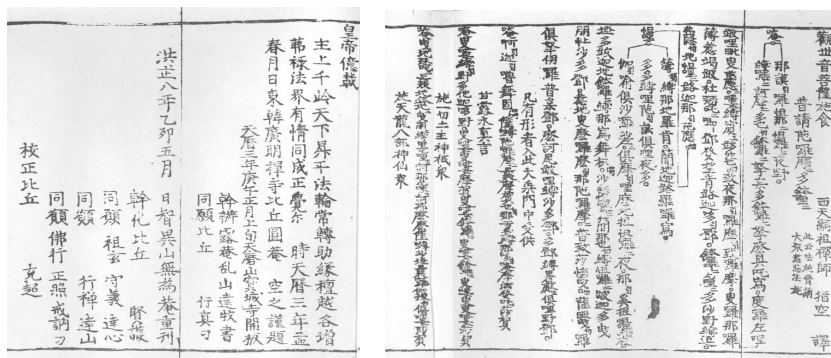
14) 全宗釋, “高麗時代의 密教經典 傳來 및 雕造考: 高麗密敎의 性格과 思想,” 경해법인 신정오 박사 화갑기념 『佛敎思想論叢』 (서울: 하산출판사, 1991), 558.

15) 서운길, 『高麗密敎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3), 26.

3.1.1 挾科添補・大佛頂如意呪・大悲呪・尊勝呪・梵語心經・施食眞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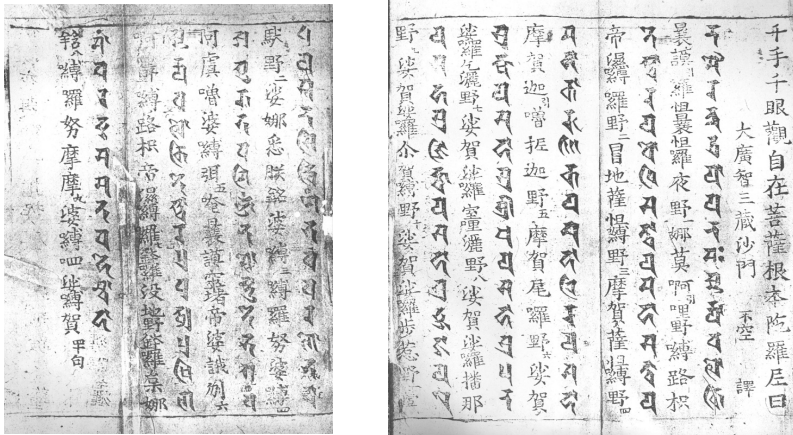
13-14세기에 유통되고 있었던 실답자가 표기된 밀교문헌의 예로 경주 祇林寺 불복장에서 발견되었던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惣持 중에서 指空이 重校한 科文 ‘佛說大佛頂…秘密大佛頂陀羅尼’, ‘科白傘蓋陀羅尼’와 指空이 번역한 ‘科正本觀自在菩薩廣大圓滿無導大悲心大陀羅尼’와 ‘科正本佛頂尊勝陀羅尼’, ‘科中印度梵本心經’, ‘觀世音菩薩施食’에서는 본문이 전부 진언이며 한자로 표기되어 있는데 忠肅王 17년(1330)에 天磨山 寶城寺에서 간행되었다가 禍王 1년(1375)에 智異山 無爲菴에서 重刊되었다.¹⁶⁾

이 자료는 지공이 중국을 거쳐 1326년 3월에 금강산을 보고자 건너와 天和寺에서 지낼 무렵 문인 達正, 善淑, 達牧 등이 宋에서 간행된 智吉祥 등이 詳校補闕한 大白傘蓋眞言 1부를 가져와 中印度 梵語의 正誤를 묻자 빠지거나 잘못된 곳을 고쳐주고 다시 梵字로 써서 전해주어 이를 바탕으로 達牧이 다시 쓰고 行眞이 새겼으며 空之가 이를 간행하였다.



<그림 4> 觀世音菩薩施食

16) 이 판본과 같은 판식과 내용을 가진 것으로 1365년 3월에 牛頭山 見岩寺에서 간행한 것도 전한다. 이 때의 각수는 達全이며 공덕주는 金忠秀로 간행사항이 다르다(折帖本 刊記; 至正二十五年 乙巳三月日 牛頭山見岩寺開板).



<그림 5> 千手千眼觀自在菩薩根本陀羅尼

3.1.2 五大眞言

현존하는 고려본으로는 개인소장의 1행 14자본, 15자본과 한국학중앙연구원 소장 1행 13-14자본이 확인된다. 五大眞言은 당대의 不空이 번역한 大悲心陀羅尼, 根本陀羅尼, 隨求陀羅尼, 大佛頂陀羅尼와 佛陀波利가 번역한 佛頂尊勝陀羅尼를 합친 것이다.

1행 15자본은 절첩본으로 권수에 42手印圖의 판화가 있고 漢文의 啓請이 4-5면(1면 6행) 있으며 이후 題目, 悉曇字, 漢字音의 순서로 전개되어 있다. 板心에는 ‘五大’, 張次, 刻手名이 있어서 ‘金益(제12장)’, ‘法琪(제15,16장)’, ‘正心(제18장)’, ‘言普(제20장)’, ‘萬金(제26장)’, ‘高順(제28장)’, ‘金柱(제30장)’, ‘吳進(제31장)’, ‘仁寶(제33장)’, ‘金祐(제35,36장)’ 등이 보인다. 또 표기 부분에서는 성조표시로 ‘去, 上’을 비롯하여 ‘轉舌, 鼻, 半音, 句字合口, 引, 吳’ 등의 표기가 한자음의 좌우에 기록되어 있다. 또 구절표시도 일부 九까지와 십진식으로 마지막에 단위가 표시된다.

한편 한국학중앙연구원의 1행 13-14자본¹⁷⁾은 ‘大佛頂陀羅尼’만 분리된 것으

로 내용과 표기법은 앞의 것과 동일하다.

3.1.3 陀羅尼類

현존하는 고려의 밀교자료 중 비교적 많은 것으로는 수국사에 발견된 것과 같은 다라니 유형의 자료를 들 수 있다. 1007년의 寶篋印陀羅尼經을 비롯하여 1045년 간행으로 추정되는 佛說解百生冤結陀羅尼經,¹⁸⁾ 1150년 평양의 廣濟鋪에서 思遠이 교정하여 간행한 梵書總持集(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¹⁹⁾ 1152년의 卍字形 보협인다라니경, 1156년과 1166년에 같은 형태로 간행된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 1184년 中原府(충주)에서 간행된 1매의 如意寶印大隨求陀羅尼梵字軍陀羅相,²⁰⁾ 1218년의 梵書總持集²¹⁾을 포함하여 고려말까지 경전이나 부적의 형태로 간행된 20여건이 알려져 있다.²²⁾

이 중 1152년 寶篋印陀羅尼經의 하단에는 ‘梵學沙門 道輝書 海眞寺開板 時天德四年月日記’에서 梵學沙門이라는 용어가 쓰이는 것과 경기도 화성 鳳林寺 腹藏에서 발견된 보협인다라니경²³⁾에서도 같은 용례가 보인다. 즉 고려시대 불

17) 南權熙, “장서각 소장 불교 典籍文化財의 書誌 연구,” 『藏書閣』 29(성남: 한국학중앙연구원, 2013. 4), 30-31.

18)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권수 도판.

19) 서병패, “安東 普光寺 木造觀音菩薩坐像 腹藏典籍 研究,”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상』(대전: 문화재청, (재)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36-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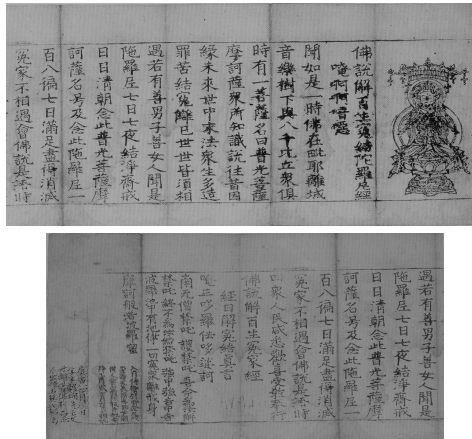
20) 수덕사 근역성보관, 『至心歸命禮 ; 韓國의 佛腹藏』(예산: 동관, 2004), 100-101.

21)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민영규선생 기증 귀중고서 특별전』(서울: 동관, 2007), 46-49. 이 절첩본의 권말에는 金山寺의 惠謹大師가 발원하고 開泰寺 仁赫大師가 새겼다는 기록과 함께 眞言 595則을 수록하고 ‘彫板梵字大藏一部’라 하여 이러한 형태로 梵字大藏이란 용어를 쓰고 있으므로 본고에서 밝히는 ‘密教大藏’도 같은 용례로 볼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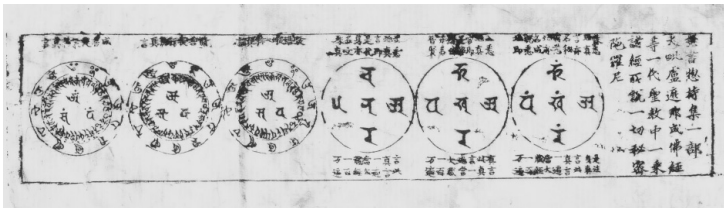
22) 南權熙, “12世紀 刊行의 佛教資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제17집(1999. 6), 384-385. 南權熙, “陀羅尼와 曼荼羅,”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청주: 청주고인쇄박물관, 2002), 277-340.

23) 온양민속박물관, 『1302年 阿彌陀佛服藏物의 調査研究』(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91),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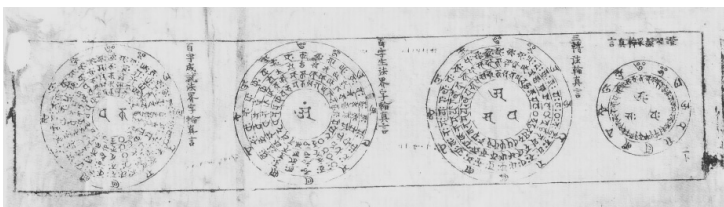
교계에서는 신라를 이어 진언의 학습과 사경활동이 특정 집단 내지는 연구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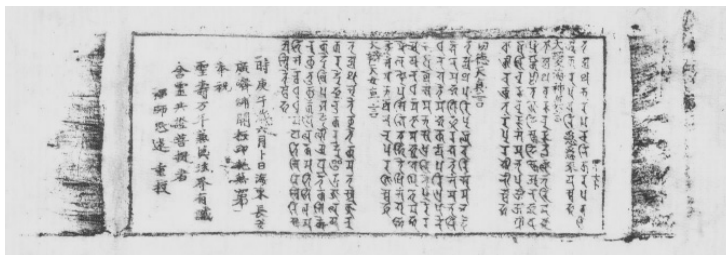
<그림 6> 1045년 간행으로 추정되는 佛說解百生寃 結陀羅尼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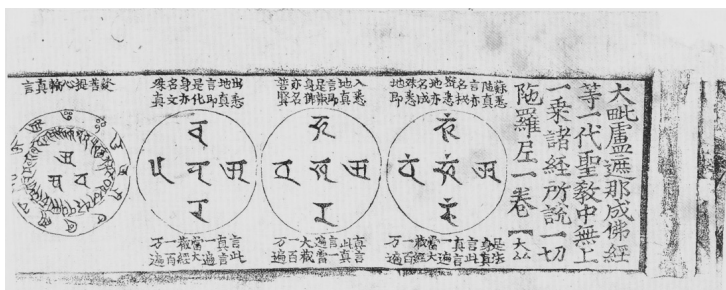
<그림 7> 梵書總持集(1150년) 제1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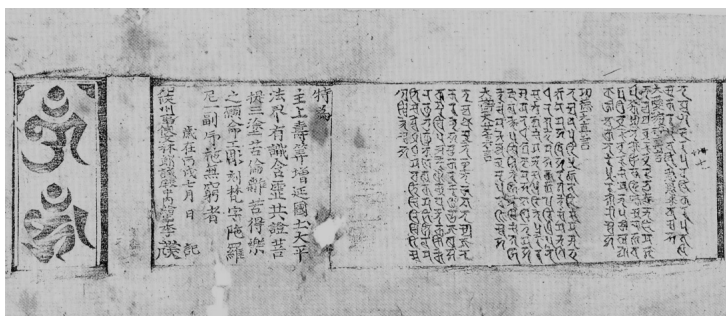
<그림 8> 梵書總持集 제2장



<그림 9> 梵書揔持集 제47장



<그림 10> 1166년 간행의 陀羅尼(1)



<그림 11> 1166년 간행의 陀羅尼(2)

3.2 史料上の 密教大藏 기록

현존본으로 볼 때 밀교 관련 寫經으로 대표적인 것은 忠烈王 원년(1275)에 왕실의 발원에 의하여 銀字로 사성된 不空絹索神變眞言經 30권 중 권13이 있다.

한편 金字로 고려시대 밀교 경전을 집성하였던 밀교대장의 관련기록은 李齊賢의 『益齋亂藁』 권5에서 忠肅王 15년(1328)의 발원에 의하여 추진되었던 『밀교대장』의 사경에 대한 언급을 들 수 있다.

… 불교경전으로 중국에 들어와 번역된 것이 헤아릴 수 없이 많지만 이른 바 다라니만큼은 중국에서 번역하지 못하였다. 또 중국뿐만 아니라 인도 사람들도 알아듣고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 하였고 오직 부처나 부처와 더불어 할 때만 알고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 그 뜻이 오묘하고 신비롭기 때문에 이해할 수가 없고 따라서 공경함이 더해지고 존중함이 지극하게 되므로 사람들에게 감응함이 깊고 신령스러운 자취가 당연히 많았을 것이다. 옛사람이 이와 같음을 알아 모으고 편찬하여 90권을 만들었으며 그 이름을 『밀교대장』이라 하고 간행하여 세상에 전하게 하였다.

… 구본을 여러 경전과 대교하여 빠지거나 잘못 된 곳을 고치고 또한 미처 수집하지 못한 40여권을 추가로 구하여 옛 것과 합하여 130권으로 엮고 글씨 잘 쓰는 사람을 시켜 나누어 베끼게 하였다.²⁴⁾

이와 같이 90권으로 편찬된 『밀교대장』이 『익재난고』의 기록처럼 목판으로 간행되었던 것인지 그 후의 寫經처럼 筆寫한 것인지, 전래 경위에 대한 기록은 조선왕조실록 등의 자료에 간접적으로 나타나 있다.

24) 李齊賢, 『益齋亂藁』 권제5, 序, 「金書密教大藏序」.

즉 世宗 5년(1423)에 일본국 사신에 의하여 요청된 大藏經 목판을 내려 달라는 요청을 받은 왕은 留後司에 傳旨하여 金沙寺²⁵⁾의 眞言大藏經 목판과 靈通寺²⁶⁾

25) 조선시대의 사료들에서는 황해도 長湍府의 사찰이라는 기록이 많다. 澄觀이 述한 고려본 『大方廣佛華嚴經普賢行願品別行疏』(보물 제1126호)의 권말에 “板留京都金沙寺角之書跋”이라는 기록이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과 관련된 金沙寺는 조선시대 16세기 楊士彥 『蓬萊詩集』의 『金沙寺 次壁上韻』을 필두로 19세기 冠巖 洪敬謨 『冠巖全書』의 『遶海勝遊記』까지 50여 차례 언급된 사찰이다. 다음은 조선시대 문집에 기록된 金沙寺에 대한 기사명을 정리한 것이다.

人物	記事名	收錄文獻
楊士彥(1517-1584)	金沙寺次壁上韻	蓬萊詩集
高敬命(1533-1592)	遊白沙汀 宿金沙寺 五十韻	霽峯續集
李 珥(1536-1584)	金沙寺次安丹城韻 / 題金沙寺 是日適見海市	栗谷全書
李海壽(1536-1598)	金沙寺題詠	藥園遺藁
鄭 澈(1536-1593)	金沙寺	松江原集
金誠一(1538-1593)	宿金沙寺在白沙汀	鶴峯集
柳 根(1549-1627)	金沙寺 憶故人洪荷衣有作 荷衣曾宰長湍	西垞詩集
金 涌(1557-1620)	金沙寺 次板上韻	雲川集
柳夢寅(1559-1623)	金沙寺 / 次金沙寺壁上韻	於于集
宋邦祚(1567-1618)	自金沙寺到豐川 再用前韻	習靜集
許 筠(1569-1618)	金沙寺	惺所覆瓿稿
沈 悅(1569-1646)	遊金沙寺 庚寅年 先君嘗遊金沙寺 故第五及之	南坡相國集
李安訥(1571-1637)	次韻題德悟師詩軸	東岳集
申敏一(1576-1650)	送朴尙之 遶 令公按節海西	化堂集
李 植(1584-1647)	自椒島 歷…金沙寺 至白翎島…未嘗休息 困憊而作	澤堂續集
吳 竣(1587-1666)	百祥樓 次姜天使韻二首	竹南堂稿
黃益清(1589-1659)	長湍金沙寺次板上諸韻	龍峰集
金德承(1595-1658)	金沙寺 憶尹子駿 絳 寄贈	少痊公集
李明漢(1595-1645)	別海西趙都事 / 別長湍楊使君	白洲集
洪柱元(1606-1672)	次季弟韻 贈海西亞使李君 伯隣	無何堂遺稿
李廷機(1613-1669)	金沙寺次壁上韻	漫翁遺稿
金壽增(1624-1701)	遊白沙汀記 / 法性傳	谷雲集
金兌一(1637-1702)	金沙寺道中 / 金沙寺 次板上韻	蘆洲集
金 構(1649-1704)	金沙寺	觀復齋遺稿
金 棧(1653-1719)	金沙寺 次白洲韻	儉齋集
申義命(1654-1716)	與長湍使君登金沙寺峯	畏巖集
崔成大(1691 - ?)	金沙寺見落照 赴儒州時	杜機詩集
金信謙(1693-1738)	登金沙寺後毗盧峯 次栗谷韻	檜巢集

의 화엄경 목판 및 雲巖寺²⁷⁾의 金字로 사경한 3本 『화엄경』 1부와 역시 金字 單本 『화엄경』 1부 등을 水站의 배에 실어 오도록 하였다.²⁸⁾ 각종 문헌상의 기록으로 볼 때 이 밀교대장의 경판을 보관하던 金沙寺는 바닷가의 경관이 좋은 곳으로 19세기까지 여러 문장가들의 시제로서 많이 등장하던 곳이지만 고려시대의 기록은 많지 않다.

이어 1423년 같은 해 12월에 圭籌, 梵齡과 都船主 久俊 등 135명이 포함된 일본 사신을 접견하는 자리에서 세종은 일본 왕이 구하고자 하는 대장경판은 우리나라에서도 한 벌 밖에 없어 줄 수가 없지만 요청을 물리칠 수도 없어 다만 密教大藏經板과 註華嚴經板, 漢字大藏經 전질을 보내겠다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일본 사신은 일본 왕이 해마다 사람을 보내어 불경을 청하여 번거로움을 끼칠 수 있으므로 경판을 내려주시면 번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 역지를 쓰기도 하였다.

위에서 세종이 언급한 密教大藏經板과 배에 실어오도록 한 金沙寺의 眞言大

人物	記事名	收錄文獻
鄭 玉(1694-1760)	巡到金沙寺次壁上韻	牛川集
李天輔(1698-1761)	金沙寺	晉菴集
徐宗華(1700-1748)	金沙寺 次楊萬古韻二首	藥軒遺集
申光洙(1712-1775)	別洪承旨光國赴豐川仕	石北集
洪良浩(1724-1802)	金沙寺望洋 / 金沙寺海月樓 觀劍舞	耳溪集
李 燾(1729-1788)	金沙寺	農隱集
李德懋(1741-1793)	金沙寺 / 理學諸先生詩 / 西海旅言	靑莊館全書
金載瓚(1746-1827)	金沙寺老居士歌	海石遺稿
成海應(1760-1839)	記海西山水/王一寧 金溟鵬/書贈孫兒駿命/記吳道子畫	研經齋全集
丁若鏞(1762-1836)	四月十五日 陪伯氏乘漁家小艇向忠州 效錢起江行絕句	興猶堂全書
趙秀三(1762-1849)	金沙寺	秋齋集
洪敬謨(1774-1851)	邊海勝遊記	冠巖全書
朴雲壽(1797-1841)	金沙寺雨後	德隱遺稿
徐贊奎(1825-1905)	長髯…得栗谷集中題金沙寺韻	臨齋集

26)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上; 退耕堂全書 卷2 (서울: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1998), 1298. 경기도 開城 安定門 밖의 사찰로 추정됨.

27) 權相老, 『韓國寺刹全書』下; 退耕堂全書 卷3 (서울: 退耕堂權相老博士全書刊行委員會, 1998), 104. 동일 이름의 사찰이 다수 있으나 경기도 開城舞仙峯 아래 恭愍王 玄陵齋宮으로 추정됨.

28) 『世宗實錄』, 世宗 5年(1423) 癸卯 10月 25日 壬申.

藏經은 같은 것이며 바로 고려의 90권본 『密敎大藏』의 목판으로 비정된다. 이때 같이 전달되었던 註華嚴經板은 이미 문종때 대각국사 義天에 의하여 宋의 淨源法師에게 부탁하여 송의 서체와 기술로 그 곳에서 새긴 120권의 『大方廣佛華嚴經疏』로 당시의 상인인 徐戩이 직접 판목을 고려로 전래시킨 판이다. 이 판은 후에 공민왕 때 李美沖의 발원으로 권수에 變相을 다시 새겨 붙인 것으로 현재 국내의 기관과 개인소장본에서 그 인출본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경판에 대한 실록과 일본측의 추가적인 기록에서 세종 6년(1424) 1월 8일에 일본 사신에게 판과 경전을 내릴 것을 알렸으며, 같은 달 20일에는 일본측에서 강제로 대장경판을 얻어내려는 시도와 계획이 알려져 수습되었다. 이어 圭籌 등이 知申事에게 올린 글에서 조선의 왕에게 사신을 온 연유를 밝힌즉 왕은 대장경을 한 벌 뿐이라 줄 수가 없고 그 대신 金字 華嚴經 80권, 梵字 密敎經板, 大藏經 1부, 註華嚴經板 이 네 가지를 준다고 하여 그 은덕이 크지만 본래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여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어 밀교대장에 대한 언급으로 범본과 같은 경우 일본에서는 이해하는 자가 없고 다만 佛家の 보배로 생각할 뿐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일본측의 불만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2월 7일²⁹⁾ 조선에서는 回禮使로 判繕工監事 朴安臣과 副使 大護軍 李藝 등으로 하여금 직접 전달하게 하면서 추가로 여러 경전과 피록을 함께 보냈다. 당시 보낸 경전은 金字 仁王護國般若波羅密經 1부, 金字 阿彌陀經 1부, 金字 釋迦譜 1부, 靑紙에 金字로 쓴 單本 華嚴經 1부, 大藏經 1부가 포함되어 당초의 대장경을 포함한 네 가지 약속 외에 4종의 경전이 더 추가되었다.

한편 이 때 일본으로 전래된 경판과 경전들이 처음에는 京都의 相國寺에 두었음을 세종 6년(1424) 회례사들이 복명한 기록³⁰⁾에 언급되어 있으므로 그 전래는 분명하나 그 이후의 流轉은 알 수 없고 그 실물 역시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여기서 이미 앞의 眞言大藏經이라는 용어와 梵字 密敎經板이라는 개념 역시

29) 『世宗實錄』, 世宗 6年(1424) 甲辰 2月 7日 癸丑.

30) 『世宗實錄』, 世宗 6年(1424) 甲辰 12月 17日 戊午.

같은 것으로 고려 재조대장경이 조성된 1251년 후로부터 忠肅王 때의 金字 密教大藏이 조성되는 1328년 이전의 어느 시기에 90권으로 편찬되어 새겨진 후 1424년에 일본으로 건너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밀교대장은 고려부터 조선초기까지 판에서 찍어 내어 책을 만들어 왕실에서 특별한 목적으로 비치하기도 하였으니 그 전래에 대한 기록 중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의 ‘漢城府’ 佛宇 ‘興德寺’ 조에 언급되어 있다. 즉 흥덕사³¹⁾는 동부 燕喜坊에 있으며 교종을 교리로 하는 종파였다. 사찰내의 전각 중 태종의 명으로 1401년 가을 지은 權近의 ‘德安殿記’³²⁾에는,

… 太宗 1년(1401) 여름에 태상왕(태조)이 명하여 예전 살던 집 동쪽에 터를 정하고 따로 새집을 짓게 하였다. 태조는 전래에 들어 고려 태조가 삼한을 통일하고 그 사가를 光明, 奉先의 두 절로 만들어 나라를 이롭게 하려 하였으므로 전대의 일을 생각하여 장차 새 집을 절로 만들어 영원히 나라를 복되게 하고 백성을 이롭게 하며 사직을 건고하게 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정전에는 석가 모니의 탄생도를 걸고 북쪽 문 위에 시령을 만들어 가운데는 密教大藏經 한 부를 봉안하였으며 동쪽에는 새로 새긴 大字 楞嚴經³³⁾ 판본을 두고 서쪽에는 새로 새긴 水陸儀文 판본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이때의 대장경은 관목에서 인출된 제본된 경전을 말하는 것이며 楞嚴經은 大字의 새로 새긴 것이라 하였으니 이는 같은 해인 1401년에 前楊井寺 주지였던 信聰이 쓴 글씨로 쓴 판본을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密教大藏의 목판은 세종 때까지 金沙寺에 보관되고 있었고, 그 인본도 태조가 별도로 비치하여 국가의 안녕을 기원한 것으로 보아 일본으로 전래되기 전까지는 잘 관리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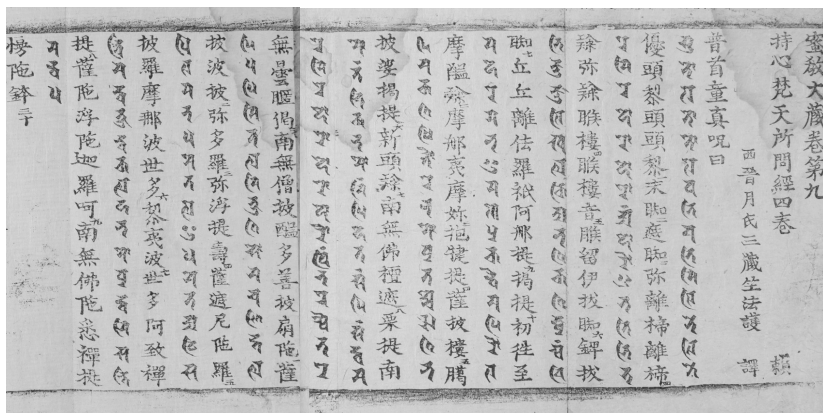
31) 현재 자세한 위치는 미상이며 왕실 사찰로 건립되었고 1424년 종파를 선종과 교종으로 통합시켰을 때 교종의 都會所가 되었다가 연산군 때 폐사되었다. 현존하는 경주 祇林寺 佛腹藏本 중의 蝴蝶裝本 楞嚴經(1370년 간행)의 10권말에는 墨書로 ‘正統元年丙辰(1436년)七月初十日 興德寺來’라는 기록이 있다.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動產文化財指定報告書』 '88指定篇 (서울: 동국, 1989), 94-96.

32) 權近, 『陽村先生文集』 권12, 記類 ‘德安殿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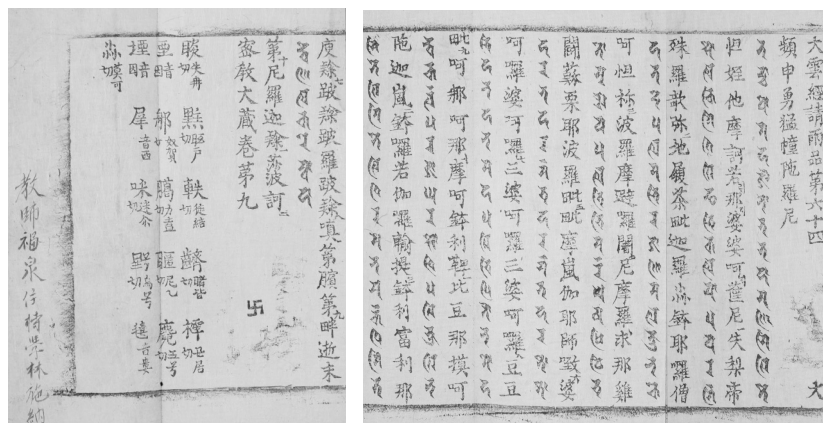
33) 이 판본은 1401년 前楊井寺住持인 信聰의 글씨로 새긴 목판본 楞嚴經 1-10권으로 보물 959호로 지정되어 있다. 千惠鳳 編著, 『國寶 24: 書藝·典籍 II』 (서울: 藝耕産業社, 1986), 154.

4. 『密教大藏』 권9의 書誌

4.1 형태와 체제



<그림 12> 『密教大藏』 권9의 卷首



<그림 13> 『密教大藏』 권9의 卷末

이 책의 크기는 29.9×15.4cm이며 표지는 앞뒤가 연결된 靑紙로 싸였고 장정은 蝴蝶裝 형태인 목판본이다. 내부의 판식은 상하의 변란이 單邊이며 匡高는 21.1cm이다. 책의 전체 분량은 14장이며 인쇄 단위 한 장은 전체 30행을 8행, 7행, 7행, 8행으로 구분하여 접은 형태이며 권차와 장차는 매 장의 제1행과 2행 사이에 ‘第九卷 第〇丈’과 같이 새겼다. 최근 발견된 이 책의 또 다른 권차인 권제 61도 본문은 같은 체제로 구성되었고 전체가 21장이며 장정의 형태는 절첩본으로 본 연구대상의 자료와는 다르지만 인쇄의 상태나 紙質³⁴⁾의 측면에서 간행의 시기는 비슷할 것으로 추정된다.

책의 권수제는 ‘密教大藏’이며 전체에 대한 編撰者 표시부분이 없고 권수제에 이어 진언이 수록된 경전명과 권차가 제시되어 있으며 그 하단부에 재조대장경의 함차표시가 있고 다음 행에 재조본에서의 역저자 표시와 같이 기술되어 있다. 이어 진언의 제목이 한자로 제시되고 내용은 먼저 悉曇字로 기술하고 다음 행에서 해당되는 한자음을 표기하였다.

이 때 실담자와 한문부분의 글자 수가 한 행에 15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한 행에 14자로 배자되는 재조대장경을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밀교대장』의 구성에서 인용된 서명의 함차가 재조본과 동일하지만 본문의 대교에서 한자 표기가 다른 부분이 간혹 나타나고 한 행 당 15자로 구성한 것과 근본적으로 내용구성에서 해당 재조본에는 수록되지 않은 실담자를 병기하고 있다는 것은 별도의 편찬과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 행이 15자로 구성되어 있는 판본은 고려본 五大眞言 등에서 그 예를 찾아볼 수 있으므로 진언에 해당하는 당시의 관행적인 형식이라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책의 권말에는 권말제와 더불어 하단 여백에 좌우가 바뀐 ‘ㄱ’자 문양이 새겨져 있으며 4행에 걸쳐 본문내 16자에 대한 音義를 대응음과 半切³⁵⁾ 표기로 수록하고 있다. 또 匡廓 밖에는 목서로 ‘敎師福泉住持學林施納’이라 하여 복장시 납입한

34) 종이는 미색의 楮紙로 3cm 당 17-18축의 발이 보인다.

35) 권61에서는 ‘註’는 ‘知古反’(7장 11행), ‘冗鳥’는 ‘胡恨反’(8장 14행)이나 권말 음의에서는 ‘胡限切’로서 한자와 반절의 표기를 달리한 것도 있다. 권9와 권61 모두 음의에서는 ‘切’로 표기되었다.

승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이 때 敎師란 『華嚴經』 권77과 『有部律破僧事』 권7에 의거하여 ‘가르치는 스승, 부처님을 말하기도 한다’³⁶⁾라는 의미가 있으나 여기서는 다른 고려 다라니 등에서 확인된 ‘梵學沙門’ 등과 이 『密敎大藏』을 관련지어 볼 때 진언을 가르치는 승려 정도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이 자료와 함께 복장되었던 다른 자료들에 기록된 묵서 중 일부가 조선 16세기의 기록으로 확인되므로 묵서의 시주기록만으로 시대를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한편 광곽 밖 묵서 ‘… 福泉住持 …’에서 福泉寺는 현존 기록으로 볼 때 충청북도 보은의 법주사 산내 암자로 신라 720년(성덕왕 19)에 창건되어 776년(혜공왕 12)에 眞表律師의 제자인 永深祖師가 중창하였고 고려에 들어서도 918년(태조 1)에 중건하고 1107년(예종 2)에 慈淨國尊이 다시 중창하였다고 전해진다. 조선에 들어와서도 세종과 세조의 지원을 받아 융성하였으며 1451년 안평대군이 세종을 천도하기 위하여 사재를 시주하여 신미대사의 중창불사를 도왔다. 1459년(세조 5) 9월에는 해인사의 대장경을 50부 印經하여 47부를 전국의 사찰에 봉안할 때 1부를 봉안하기도 하였다. 이후 조선후기부터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중건과 중수를 거듭하였고 근세에 들어서는 禪院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³⁷⁾ 다른 지역에서 같은 이름의 사찰이 있지만 그 역사적 배경 등으로 미루어 볼 때 金守溫이 1464년(세조 10) 2월에 왕명을 받아 지은 ‘福泉寺記’가 전해지는 이 사찰로 비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자료와 함께 발견되었던 불경 중에는 1562년의 복장시 시납한 묵서 기록도 있어서 고려와 조선시대의 복장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 비록 중국의 元版 대장경판인 『阿毗達摩大毗婆沙論』 卷第17의 표지 묵서에 ‘中德前光明住持戒祥’이라 하여 光明寺의 前住持였던 中德³⁸⁾의 승계를 가지고 있던 戒祥이 시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 광명사³⁹⁾도 평안남도 안주군의 광명산에 있었던

36) 智冠 編著, 『伽山佛教大辭林』 권2 (서울: 伽山佛教文化研究院, 1998),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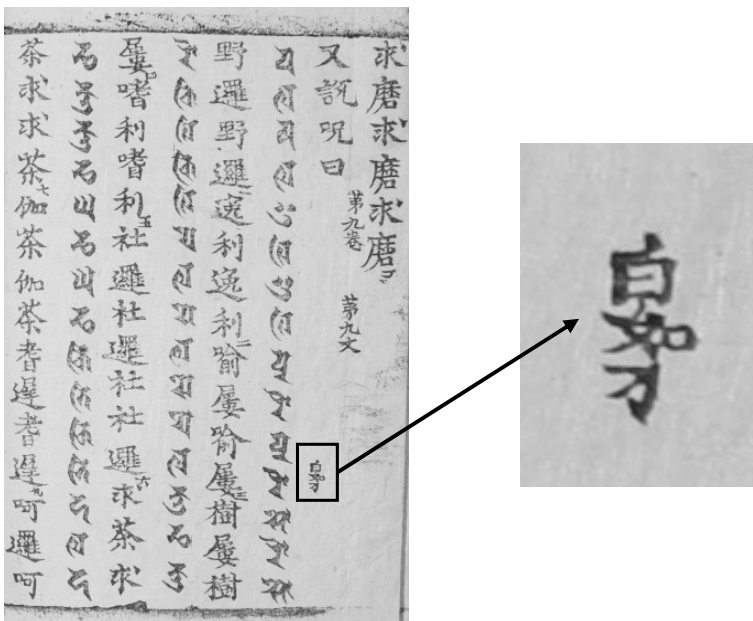
37) 上揭書, 卷10 (2008), 426-427. ‘福泉庵’.

38) 中德은 고려 전기에는 볼 수 없던 승계이며 조선초기(1393) 禪僧인 億政寺 大智國師碑의 비문 등에 보인다. 許興植, 『高麗佛教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328-329.

사찰로 알려져 있지만 자세한 내력은 알 수 없다.

즉 이러한 기록들에 의하여 일부 자료는 고려말의 같은 시기에 시납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역시 밀교와 관련된 인물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이 자료의 판각에 관련된 인물로는 제9장 2행 하단부에 小字로 ‘白如刀’라고 새겨서 당시의 刻手임을 알 수 있으나 이보다 앞서 조성된 재조대장경의 각수들 인명록과 비교해 볼 때 동일 인명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는 조성된 시기가 1328년 이전의 시기라는 점과 재조본이 완성되는 1251년 이후라고 볼 때 만약 재조본 완성과 머지않은 시기라면 당연히 앞서 대장경 판각의 경험이 있는 각수가 동원되었을 것이나 확인되지 않으므로 적어도 한 세대가 지난 정도의 시기로 그 간행의 시기는 약 13세기 말경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림 14> 『密教大藏』 권9의 제9장 각수 ‘白如刀’

39) 權相老(1998), 162.

4.2 수록 범위 및 기술

4.2.1 수록 범위

이 『밀교대장』 권9의 내용은 대장경 구성의 천자문 순서 함차중 141-150에 해당하는 ‘賴, 及, 身, 髮, 大’ 字函의 7종의 경전에 포함된 진언들이며 특이한 사항은 ‘髮’함에 해당되는 大乘入楞伽經 卷第6의 10행 ‘楞伽經呪’와 4행 ‘楞伽經呪曰’ 중에서 후자가 연결되어 배치되지 않고 권말로 옮겨진 것이다. 함차의 구성 상 위치가 서로 떨어진 것과 표기상 다른 경전에서는 중복이 나올 때 ‘又陀羅尼’나 ‘又說呪曰’ 라고 표시한 것과는 차이가 나지만 현재로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수록된 경전과 수록 위치의 표기는 다음과 같다.

- (1) 持心梵天所問經 4卷 賴 (卷1-4)
- (2) 思益梵天所問經 4卷 及 (卷1-4)
- (3) 勝思惟梵天所問經 卷第6 及 (卷1-6)
- (4) [入]楞伽經 卷第8 身 (卷1-10)
- (5) 大乘入楞伽經 卷第6 髮 (卷1-7)
- (6) 大雲輪請雨經 卷上 大 (卷上-下)
- (7) 大雲經請雨品 第64 大 (1卷)

이 중 持心梵天所問經과 思益梵天所問經은 표기에는 4卷이라 하였으나 실제 내용은 다른 경전의 표기와 같이 제4권으로 확인된다. 즉 경전에서의 해당 위치를 권차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密教大藏 卷第9의 수록 경전명과 진언〉

- (1) 持心梵天所問經 4卷 賴 / 西晉月氏三藏 竺法護 譯

① 普首童眞呪曰

(2) 思益梵天所問經 4卷 及 / 姚秦龜茲國三藏 鳩摩羅什 譯

① 召諸八部衆陀羅尼

(3) 勝思惟梵天所問經 卷第6 及 / 天竺三藏 菩提流志 譯

① 召諸八部衆陀羅尼

(4) [入]楞伽經 卷第8 身

① 佛說大惠菩薩真言曰

② 又陀羅尼

(5) 大乘入楞伽經 卷第6 髮 / 大周于闐國三藏法師 實叉難陀 奉勅譯

① 楞伽經呪

(6) 大雲輪請雨經 卷上 大 / 那連提耶舍 譯

① 施一切衆生安樂陀羅尼曰

② 震吼奮迅勇猛幢陀羅尼曰 請雨經 卷下

③ 一切諸龍王等降澍大雨呪

④ 咄諸龍王降雨呪

⑤ 龍王等憶念諸如來法及菩薩行呪

⑥ 大意氣龍王雲雨速來呪

⑦ 又說呪曰

⑧ 又說呪曰

⑨ 又說呪曰

⑩ 能令一切諸龍捨睡眠呪

⑪ 諸龍王等起大慈心爲菩提本呪

⑫ 諸龍憶念慈悲滅煩惱呪

⑬ 降澍大雨呪

⑭ 又說呪曰

⑮ 大龍王持大風輪放六味雨呪

⑯ 又說呪曰 **白如刀**

⑰ 又說呪曰

⑮ 令諸衆生除滅一切障業重罪呪

⑯ 召集龍王降澍大雨陀羅尼

(7) 大雲經請雨品 第64 大

① 頻申勇猛幢陀羅尼

② 又說呪曰

③ 諸佛菩薩重說不起諸惡呪

(8) 楞伽經呪曰 髮 [大乘入楞伽經 卷第6]

4.2.2 본문의 기술

밀교에 있어서 진언이란 범어 mantra의 意譯으로 音譯은 漫怛羅로 허망이 없는 진실한 言詞을 의미하고 呪, 神呪, 密呪, 密言, 陀羅尼 등으로 표현하며 이를 讀誦觀想함으로써 해탈을 얻고자 하는 방편으로 사용된다.

이 자료에 수록된 진언의 표기에 쓰인 ‘悉曇’은 범어 siddham을 음역한 것으로 成就吉祥을 기원하는 뜻이지만 후에 字母章의 총칭으로 사용되면서 범자 자모의 명칭이 되었다. 실답자의 조직은 麻多(matrka)와 體文(vyanjana)으로 마다는 韻 16개의 母音이며, 체문은 35개의 字音을 말한다. 마다는 12字의 通麻多(2字 界畔字 포함), 4字의 別麻多로 구성되고 체문은 25字의 五類聲과 10字의 徧口聲으로 나누어지고 그 운용은 形, 音, 意의 3가지 방식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구조의 진언이 수록된 자료는 경전의 중간에 呪 단위로 삽입된 경우와 권수, 권말에 의식용으로 사용된 경우 및 독립된 하나의 다라니경으로 나타나는 경우 등 다양한 양상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밀교대장』 권9의 경우는 단문의 呪文을 제외한 진언 부분을 대장경의 함차별로 모아서 편집한 것으로 구조적으로 실답자와 한자음 표기 부분이 병행되어 있다.

본문의 시작은 실답자 표기와 병행하여 해당되는 음을 한자로 다음 행에 표기하고 있지만 한자로 기술된 부분에는 끊어 읽기를 위한 구절표시가 숫자를 10개

단위로 나누어 글자의 우측하단에 표기하고 있다. 이는 조선전기에 대표적으로 유통되었던 五大眞言에도 같은 형식으로 나타나지만 오대진언에서는 계속 연결된 숫자인 반면 여기서는 10진 단위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다르다.

음운에 대한 표기로 長音を 의미하는 ‘長’을 작게 병기하고 있는바, 예를 들면 제3장의 22행 ‘衢’의 좌측, 26행 ‘璽’의 우측, ‘多’의 우측, 28행 ‘阿’, ‘摩’, ‘婆’의 우측 등 전권에 걸쳐 나타난다. 또 같은 음운적 조건을 지시하는 ‘里’, ‘引’, 성조표시 중 去聲은 ‘去’로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표기는 본 연구 대상의 분량이 작아서 전체의 예를 볼 수 없지만 오대진언에서는 ‘長’에 대응하는 短音を 의미하는 ‘短’과 성조표시 중 ‘上’, ‘入’도 보이며 그밖에 ‘重音’, ‘半音’, ‘鼻音’, ‘轉舌’을 비롯하여 ‘吳’, 半切과 ‘噤’의 경우 ‘句字合口’ 등의 표시도 보인다. 이러한 지시부호들은 해당 글자의 하단 좌우에 기입하지만 선후의 원칙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하본을 작성할 때 적당한 여백에 따라서 좌우 또는 상하에 표시하였다.

4.2.3 수록 진언의 재조대장경 표기와의 비교

『밀교대장』 권9에 나오는 陀羅尼를 재조대장경의 경전에 수록된 다라니와 대조해본 결과 성운과 음절표시, 그리고 본문의 수록내용 및 글자 등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대체로 『밀교대장』 권9에 나오는 다라니가 재조대장경의 경전에 수록된 다라니에 비하여 성운 및 음절표시, 본문의 수록내용이 축약되거나 생략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그 차이점을 대조한 것이다.

<표 1> 『밀교대장』 권9와 재조대장경의 성운 및 음절표시 대조

2. 思益梵天所問經 4卷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① 성운표시	召諸人部衆陀羅尼 ■ 舍多阿哆羅提佉 提薩婆浮多伽羅呵	文殊師利何等爲呪術章句 ■ 舍多阿哆羅提佉[佉勒寫反] 提薩婆浮多伽羅呵[呵呼奈反]

② 음절표시	■ 喉樓[九]喉樓[十] ■ 堙婆隸[一] ■ 南無佛馱悉纏闍曼哆邏[二十七]	■ 喉樓[九]喉樓[十] ■ 堙婆隸[十一] ■ 南無佛馱悉纏闍曼哆邏
3. 勝思惟梵天所問經 卷第6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① 성운표시	召諸八部衆陀羅尼 ■ 多軼他[一]憂頭 ■ 那娑[長] ■ 跋大捷 ■ 南磨僧伽[重] ■ 薩婆伽囉[劣俄反] ■ 賀[重音三十六]	文殊師利何等名爲呪術章句 ■ 多軼他[徒結反長音也自下不言長者悉是短音第一句]憂頭[重音自下皆同不言][重者悉是輕音] ■ 那[泥大反]娑[長音] ■ 跋大[重音]捷[巨言反] ■ 南磨僧伽[重音] ■ 薩婆伽囉[劣俄反]賀[重音三十六]
② 음절표시	■ 伽帝[八]辛頭麗 ■ 離帝麗[一] ■ 南無達摩耶[二] ■ 耶婆婆系	■ 伽帝[十八]辛頭麗[十九] ■ 離帝麗[二十一]南無達摩耶[二十二] ■ 耶[二十四]婆婆系[二十五]
4. [入]楞伽經 卷第8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② 음절표시	佛說大惠菩薩眞言曰 ■ 奚彌奚彌[九] 婆迷婆迷[十] ■ 歌梨歌梨[一] ■ 除除除除[四] 蘇婆呵[三十五]	說呪曰 ■ 奚彌奚彌 婆迷婆迷 歌梨歌梨 ■ 除除除除 蘇婆呵
5. 大乘入楞伽經 卷第6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① 성운표시	楞伽經呪 ■ 縛 ■ 黠[臚戶反下同]茶[去聲下同] ■ 耆若[壤舸反二合]咤薩普[二合] ■ 地	說呪曰 ■ 縛[扶可反] ■ 黠[臚戶反下同]茶[去聲下同] ■ 耆若[壤舸反二合]咤薩普[二合] ■ 地[依字呼]
② 음절표시	■ 楮楮楮[三]杜杜杜杜[四] ■ 杜虎杜虎杜虎莎婆訶	■ 楮楮楮[三十三]杜杜杜[三十四]杜 ■ 杜虎杜虎杜虎[三十五]莎婆訶[三十六]
6. 大雲輪請雨經 卷上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① 성운표시	1) 施一切衆生安樂陀羅尼曰 ■ 帝師禪[二] ■ 薩底夜波羅帝若 ■ 闍婆獨佉除摩那	說呪曰 ■ 帝[諸呪帝皆丁利反]師禪[據利反三] ■ 薩底夜波羅帝若[女賀反] ■ 闍婆獨佉除摩那[去聲十八]
② 음절표시	■ 宮婆羅[引]	■ 宮婆羅[引十三]

大雲輪請雨經 卷下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① 성운표시	2) 震吼奮迅勇猛幢陀羅尼曰 ■ 洛敍彌[去二] ■ 佛陀喃[去引]	說呪曰 ■ 洛敍彌[去聲二] ■ 佛陀喃[引南去聲]
② 음절표시	■ 訶陀迦隸[二] ■ 社羅社羅社羅社羅	■ 訶陀迦隸[十二] ■ 社羅社羅[十六]社羅社羅[十七]
① 성운표시	3) 一切諸龍王等降澍大雨呪 ■ 伽喃[去五]閼婆[去] 閼婆侍毘[去]侍毘[七]	說呪曰 ■ 伽喃[去聲五]閼婆閼婆[一句竝去聲六]侍 毘侍毘[竝去聲七]
① 성운표시	13) 諸龍憶念慈悲滅煩惱呪 ■ 揭荼	應當憶念最上慈悲威神功德滅煩惱者一切 諸佛如來名字而說呪曰 ■ 揭[其謁反]荼[去聲]
② 음절표시	■ 揭荼耆稚耆稚	■ 揭荼[一]耆稚耆稚[二]
① 성운표시	15) 又說呪曰 ■ 膩	又說呪曰 ■ 膩[年一反]
② 음절표시	■ 陀囉陀囉[一]地利地利[二]	■ 陀囉陀囉[一]地利地利[二]
③ 다라니 대조 b 글자	■ 豆漏豆[漏]	■ 豆漏豆[噓]
② 음절표시	19) 令諸衆生除滅一切障業重罪呪 ■ 除摩除摩[七]	令諸衆生持佛功德除滅一切障業重罪而說呪曰 ■ 除摩除摩[十七]
③ 다라니 대조 b 글자	■ 摩那賜[莎賀][八]	■ 摩那賜[十八]除一切雨障[莎訶]

7. 大雲經請雨品 第64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③ 다라니 대조 a 수록내용		說呪曰 ■ 恒地也他[其呪文中字口傍作者皆轉舌讀 之注引字者皆須引聲讀之] … 婆盧[引]迦 那[引]地師恥坻[引十八]波羅闍若[引] 闍若[引]那擗醯[引]莎呵 ■ 총 14행
② 음절표시	1) 頻申勇猛幢陀羅尼 ■ 摩呵鉢利鞞[一]	大龍王我今當說昔從大悲雲生如來所聞頻 申勇猛幢陀羅尼 … 說呪曰 ■ 摩呵鉢利鞞[十一]
③ 다라니 대조 b 글자	■ 菩澄[加] ■ 遮[妬]婁舍阿囉	■ 菩澄[伽] ■ 遮[妒]婁舍阿囉
② 음절표시	3) 諸佛菩薩重說不起諸惡呪 ■ 卑薩婆多他竭多薩坻那	諸佛菩薩發眞實語重說呪曰 ■ 卑[五十六] 薩婆多他竭多薩坻那[五十七]
③ 다라니 대조 b 글자	■ 殊復殊[遼] ■ 阿伽[比]他迷帝	■ 殊復殊[復] ■ 阿伽[叱]他迷帝

③ 달라니 대조 a 수록내용		■ 怛咤怛咤[一]帝致帝致[二]闍闍闍 [三] … 鉢婆囉波利沙[六十]坻呵闍浮提 卑莎呵[六十一] ■ 총 219행
8. 楞伽經呪日	密教大藏 卷第9	再雕大藏經
① 성운표시	楞伽經呪日 ■ 醺[去] ■ 噯	說呪日 ■ 醺[去聲下同] ■ 噯[上聲呼]

5. 수록 내용의 분석

경전 내용에 있어서 추가나 성조표시, 異表記 등 재조대장경과 비교하여 달라진 부분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비록 함차는 재조대장경을 동일하게 따랐지만 그 표기나 수록분량에서 차이가 나므로 그 저본이 재조대장경이 아닌 당시 유통본의 표기를 따랐을 가능성도 있다. 진언의 표기 면에서 재조대장경에 수록되지 않았던 실담자를 어떠한 경로 즉, 사간본이나 유통되고 있던 필사본 등을 저본으로 베껴 登梓本으로 만들어 간행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차이는 본문의 기술에서 뿐만 아니라 표제 부분에도 있어서도 많이 차이를 찾아 볼 수 있어서 『밀교대장』 권9의 표제는 대체로 재조대장경의 표제보다는 축약형으로 나타난다. 이를 비교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표 2> 『밀교대장』 권9와 재조대장경의 陀羅尼 제목 비교

	『密教大藏』 卷9	再雕大藏經
1. 持心梵天所問經 4卷	普首童眞呪日	… 普首號曰神呪之句義也
2. 思益梵天所問經 4卷	召諸八部衆陀羅尼	… 文殊師利何等爲呪術章句
3. 勝思惟梵天所問經 卷第6	召諸八部衆陀羅尼	… 文殊師利何等名爲呪術章句
4. [入]楞伽經 卷第8	佛說大惠菩薩眞言日 又陀羅尼	說呪日 說呪
5. 大乘入楞伽經 卷第6	楞伽經呪	說呪日

	『密教大藏』卷9	再雕大藏經
6. 大雲輪請雨經 卷上	施一切衆生安樂陀羅尼曰	說呪曰
	震吼奮迅勇猛幢陀羅尼曰	說呪曰
	一切諸龍王等降澍大雨呪	又復一切諸佛菩薩真實力故遂復勅諸一切龍等於閻浮提所祈請處降澍大雨除滅五種雨之障導而說呪曰
	佛實力故大龍王等速來降雨呪	佛實力故大龍王等速來在於閻浮提內所祈請處降澍大雨而說呪曰
	咄諸龍王降雨呪	佛實力故咄諸龍王於閻浮提請雨國內降澍大雨而說呪曰
	龍王等憶念諸如來法及菩薩行呪	諸龍王等速來至此各各憶念諸如來法及菩薩行起於慈心悲心喜心及以捨心而說呪曰
	大意氣龍王雲雨速來呪	大意氣龍王慈心正念妙密佛法持大雲雨速來至此而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龍令一切諸龍捨睡眠呪	三世諸佛真實力故能令一切諸龍眷屬捨於睡眠又說呪曰
	諸龍王等起大慈心爲菩提本呪	我勅一切諸龍王等起大慈心爲菩提本而說呪曰
	諸龍憶念慈悲滅煩惱呪	應當憶念最上慈悲威神功德滅煩惱者一切諸佛如來名字而說呪曰
	降澍大雨呪	降澍大雨而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大龍王持大風輪放六味雨呪	尊者龍母名分陀羅大雲威德喜樂尊大龍王身體清涼持大風輪諸佛實行力故放六味雨而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令諸衆生除滅一切障業重罪呪	令諸衆生持佛功德除滅一切障業重罪而說呪曰
	召集龍王降澍大雨陀羅尼	我勅是等一切龍王於閻浮提請雨國內降澍大雨訖又說呪曰
7. 大雲經請雨品 第64	頻申勇猛幢陀羅尼	大龍王我今當說昔從大悲雲生如來所聞頻申勇猛幢陀羅尼 … 說呪曰
	又說呪曰	又說呪曰
	諸佛菩薩重說不起諸惡呪	諸佛菩薩發真實語重說呪曰
8. 楞伽經呪曰(：5. 大乘入楞伽經 卷第6)	楞伽經呪曰	說呪曰

5.1 持心梵天所問經 4卷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賴’함에 해당하고 저자사항은 西晉月氏三藏 竺法護가 번역한 것이다.

수록 내용은 평등, 不二의 여러 법문을 설하고 있으며 전편에 걸쳐서 많은 인물이 등장하고, 각 품을 통해서 동방 月明 여래의 국토에서 온 持心 범천이 활약하고 있어 『持心梵天所問經』이라고 부른다. 4권 18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권: 제1 明網菩薩光品, 제2 四法品, 제3 分別法品, 제4 解諸法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존은 생사를 버리지 않고, 泥洹, 즉 열반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다.
- 제2권: 제5 難問品, 제6 問談品, 제7 談論品을 통하여 眞諦의 입장에서는 환희와 고뇌라는 두 가지 일이 없다고 하였다.
- 제3권: 제8 論寂品, 제9 力行品, 제10 志大乘品, 제11 行道品, 제12 歎品, 제13 詠德品, 제14 等行品으로 불도를 구하는 것은 사건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 제4권: 제15 授現不退轉天子蒞品, 제16 建立法品, 제17 諸天嘆品, 제18 囑累品 등에서 들은 바 없음이 곧 경을 듣는 것이라 설하였다.

이와 같은 내용은 不二 사상에 근거한 것으로, 지심 범천이 각 권에서 다른 보살들보다 활약하고 있는 점에서 재가 불교를 설하는 것으로 보고 이런 점에서 이 경전은 『維摩經』 등과 상통하는 점이 있다.

5.2 思益梵天所問經 4卷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及’함에 해당하고 저자사항은 姚秦 龜茲國三藏 鳩摩羅什이 번역한 것이다. 내용은 『유마경』과 상통하는 평등, 不二 사상에 입각하여 如來光의 名號 功德, 보살의 志性 堅固, 제법의 평등으로 생사와 열반이 없다는

것이다. 4성제, 聖賢行의 無二 無差別, 보리의 性, 보살의 발심, 보살의 勤精進, 諸天의 護法 등에 대하여 망명 보살, 문수사리 보살, 사익 범천, 대가섭 등의 문답을 설하고 있다. 4권 18품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제1권: 제1 序品, 제2 四法品, 제3 分別品, 제4 解諸法品
- 제2권: 제4 해제법품의 나머지 부분, 제5 難問品, 제6 問談品
- 제3권: 제7 談論品, 제8 論寂品, 제9 伽行品, 제10 志大乘品, 제11 行道品
- 제4권: 제12 稱嘆品, 제13 詠德品, 제14 等行品, 제15 授不退轉天子記品, 제16 建立法品, 제17 諸天嘆品, 제18 囑累品

내용은 持心 범천을 思益 범천으로 하고, 明網 보살을 網明 보살로 하는 등을 제외하면, 거의 『지심범천소문경』과 동일하다. 경의 내용 가운데 사익 범천과 망명 보살의 문답이 있는데, 범천이 “인연으로써 마땅히 알아야 하고 부처님이 망상을 넘어서 생사와 열반의 두 가지 相을 분별하는 것에서 모든 법은 평등하여 가고 옴이 없으며, 생사를 넘어서함이 없고, 열반에 들어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자, 부처님이 여러 法의 올바른 성품을 말하였다고 칭찬하는 곳에 이 경전의 특색이 잘 드러나 있다. 측루품에서는 이 경의 이름을 『攝一切法莊嚴諸佛法思益 梵天所問文殊師利論義』 등으로도 말하고 있다. 주석으로 世親의 論 4권, 賢明의 註 10권, 圓澄의 簡註 4권 등이 있다.

5.3 勝思惟梵天所問經 卷第6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及’함에 해당하고 저자사항은 天竺 三藏 菩提流志가 번역한 것이다.

수록 내용은 평등, 不二의 여러 법문을 설하고 있으며 끝 부분에 있는 기록에 의하면, 이 경전은 그 내용에 따라 『平等攝一切法』, 『莊嚴一切佛法』, 『勝思惟梵天所問』, 혹은 『文殊師利論議』라고도 부른다. 異譯本이 2종 더 있어서 竺法護

가 번역한 『持心梵天所問經』 4권본과 鳩摩羅什이 번역한 『思益梵天所問經』 4권본이 있다. 이러한 두 번역본은 모두 18품으로 나누어져 있지만 이 경전은 품의 구분이 없어 임의로 鳩摩羅什 번역본의 품명을 여기에 배당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제1권: 제1 序品, 제2 四法品, 제3 分別品の 일부
- 제2권: 分別品の 일부, 제4 解諸法品, 제5 難問品の 일부
- 제3권: 難問品の 일부, 제6 問談品の 일부
- 제4권: 問談品の 일부, 제7 談論品, 제8 論寂品の 일부
- 제5권: 論寂品の 일부, 제9 仿行品, 제10 志大乘品, 제11 行道品, 제12 稱歎品, 제13 詠德品, 제14 等行品, 제15 授不退轉天子記品の 일부
- 제6권: 授不退轉天子記品の 일부, 제16 建立品, 제17 諸天歎品, 제18 囑累品

이 경전은 대승경전 초기의 것으로서, 般若部 경전과 『法華經』 사이에 성립한 것이라고 하는데, 『유마경』과 함께 소승 배척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경전이다. 이 경은 異譯本 가운데 鳩摩羅什 번역본과 유사하고 주석본으로는 世親의 『勝思惟梵天所問經論』 4권이 있다.

5.4 [入]楞伽經 卷第8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身’함에 해당하며 전체 18품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품은 다음과 같다.

- 제1 請佛品, 제2 問答品, 제3 集一切佛法品, 제4 佛心品,
제5 盧迦耶陀品, 제6 涅槃品, 제7 法身品, 제8 無常品, 제9 入道品,
제10 如來常無常品, 제11 佛性品, 제12 五法門品, 제13 恒河沙品,
제14 剎那品, 제15 化品, 제16 遮食肉品, 제17 陀羅尼品, 제18 總品

이 경을 求那跋陀羅 번역본과 비교해보면 請佛品과 陀羅尼品, 總品 등이 추가되어 있으며 그 중 請佛品은 경전 전체에 대한 서문이라 할 수 있으며, 陀羅尼品에는 『楞伽經』을 독송하는 자를 위한 다라니가 실해져 있고 總品은 偈頌의 모음집에 해당한다.

5.5 大乘入楞伽經 卷第6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髮’함에 해당하고 저자사항은 大周 于闐國三藏法師 實叉難陀가 번역한 것이다.

이 경전의 번역자에 대해서는 實叉難陀가 『화엄경』을 번역한 뒤 佛授記寺에서 번역하던 중 칙령을 받고서 入京하였으므로 번역을 완료하지 못하였고 뒤에 吐火羅 출신 彌陀仙 삼장이 復禮 법장 등과 함께 완성하였음을 法藏의 『入楞伽心玄義』에서 기록하고 있다. 전체의 구성은 10품으로 다음과 같다.

- 제1 라바나왕권청품, 제2 집일체법품, 제3 무상품, 제4 현증품,
제5 여래상무상품, 제6 찰나품, 제7 변화품, 제8 단식육품,
제9 다라니품, 제10 계송품

5.6 大雲輪請雨經 卷上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大’함에 해당하고 저자사항은 那連提耶舍가 번역한 것이다.

那連提耶舍가 번역한 『大雲輪請雨經』은 不空이 번역한 것과 내용이 거의 동일하지만 나련제야사의 번역에는 뒷 부분에 제단의 조성법과 畫像을 그리는 법, 공양법 등이 추가되어 있다.

『대운륜청우경』은 상, 하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고 비를 내리는 다라니와 54尊의 이름을 실하고 그것을 외우는 공덕에 대해서 설명하였다. 상권에서는 부처가

難陀陂波難那 용궁에 있을 때 모든 용왕들이 안락과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묻자 용왕들이 중생들에게 자비로운 일을 하면 일체의 장애가 없고 큰 복과 덕을 얻어 남에게 공경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이후 부처님은 용왕들이 항상 수지 독송하여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리고 일체의 고액을 제거할 수 있는 다라니를 설하면서 54명의 여래의 이름도 설하여 이를 독송하면 일체의 번뇌와 고뇌가 없어지고 인간 세상에 비를 내릴 수 있게 된다고 하였다.

하권에서는 부처가 미래의 중생들을 위해서 날이 가물었을 때 비를 내리는 다라니 두 가지를 설하여 그 중 하나는 모든 불보살의 힘을 입어서 중생들을 이롭게 하기 때문에 가물 때는 비를 내리고 장마 때는 비를 그치게 하고 기근과 질병을 없애는 것이었다. 다른 다라니는 152句의 긴 다라니로서 용들의 다섯 가지 번뇌를 없애 버릴 수 있다고 하였다.

5.7 大雲經請雨品 第64

이 경전은 재조대장경의 ‘大’함에 해당하고 1권으로 되어 있으며 6세기 중엽에 인도 출신의 闍那耶舍가 번역한 것이다. 이 경은 앞의 『대운륜청우경』과 같이 『大雲經』 가운데서 비를 청하는 법에 대하여 설교한 품이라는 뜻이며 異譯本으로 같은 역자의 『大方等大雲經請雨品 第64』 1권과 나련제야사가 번역한 『대운륜청우경』 2권, 불공이 번역한 『대운륜청우경』 2권이 있다.

이 경전의 내용은 부처가 용왕 난타우파난타의 대운륜 궁전에서 수많은 보살, 비구, 용왕들과 함께 있을 때 설한 것으로 용왕들이 자비심을 가지고 화를 막고 복을 준다는 주문이나 부처들의 이름을 외우면서 비를 청하면 소원을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였다.

6. 大藏目錄 下卷 溪函-洞函에 수록된 陀羅尼經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대상본은 재조대장경의 141번째 ‘賴’함에서 150번째 ‘大’함에 포함된 진언부분이며, 다른 발견본 권61의 ‘磻’함은 529번째의 함에 속한다. 지금까지 알려진 전체의 권수가 90권이라는 점과 재조대장경의 마지막 639번째 ‘洞’함을 비교하면 110개 함에서 29권이 편성되어야 한다. 한편 권9의 경우 1-150번이 9권으로 편성되었으므로 磻함 이후의 溪函-洞函 사이에서 훨씬 많은 분량이 수록되어야 한다. 그 편성의 가능성 중 우선적으로 설정되는 경전은 陀羅尼類일 것으로 이를 목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不空이 번역한 것이 가장 많고 施護 등도 다수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표 3> 大藏目錄 下卷, 溪函-洞函 收錄 陀羅尼經 目錄

역자	다라니명	비고
不空	出生無邊門陀羅尼經 1卷	五函入10卷
	一切如來心秘密全身舍利寶篋印陀羅尼經 1卷	佐函入10卷
	佛說一切如來金剛壽命陀羅尼經 1卷	
	佛說雨寶陀羅尼經 1卷	時函入11卷
	大寶廣博樓閣善住秘密陀羅尼經 3卷	
	菩提場莊嚴陀羅尼經 1卷	阿函入10卷
	除一切疾病陀羅尼經 1卷	
	能淨一切眼疾病陀羅尼經 1卷	
	佛說救拔焰口餓鬼陀羅尼經 1卷	
	觀自在菩薩說普賢陀羅尼經 1卷	
不空	佛頂尊勝陀羅尼念誦儀軌法 1卷	衡函入11卷
	金剛壽命陀羅尼念誦法 1卷	奄函入10卷
	七俱胝佛母所說准提陀羅尼經 1卷	宅函入11卷
	仁王護國般若波羅蜜多經陀羅尼念誦儀軌 1卷	阜函入10卷
	五字陀羅尼經 1卷	微函入10卷
	普遍光明清淨熾盛如意寶印心無能勝大明王大隨求陀羅尼經 2卷	微函入10卷
	佛說一髻尊陀羅尼經 1卷	旦函入10卷
	仁王般若陀羅尼釋 1卷	營函入11卷
牟尼室利/ 般若	守護國界主陀羅尼經 10卷	公函入10卷

역자	다라니명	비고
施護	佛說寶帶陀羅尼經 1卷	頗函入9卷
	佛說金身陀羅尼經 1卷	
施護 [외]	佛說聖觀自在菩薩不空王秘密心陀羅尼經 1卷	軍函入9卷
施護	佛說施一切無畏陀羅尼經 1卷	
	聖八千頌般若波羅蜜多一百八名眞實圓義陀羅尼經	
不空	訶利帝母眞言經 1卷 (1-2行)	阿函入10卷
法護	佛說如來不思議秘密大乘經	嶽
施護	佛說秘密三昧大教王經	軍
	一切秘密最上名義大教王儀軌	用
	佛說秘密相經	精
不空	金剛頂一切如來眞實攝大乘現證大教 下卷	伊
惟淨	佛說海意菩薩所問淨印法門經 17, 18卷	禹

7. 맺음말

이상과 같은 연구를 통하여 守國寺의 佛腹藏 자료에서 확인된 『密敎大藏』 권9를 서지적 관점에서 분석해 보았다.

이미 주지하고 있는 바와 같이 ‘密敎大藏’이란 용어가 여러 사료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 실체가 확인되지 않아서 大藏經과 같은 개념의 일반명사로 간주되어 왔으나 실물 자료 권9와 권61을 통하여 별도의 서명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밝혀진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밀교대장』 권9는 전체 14丈의 蝴蝶裝 형태로 1장이 8/7/7/8행의 30행이며 한 행은 15자를 배열하였다. 본문의 순서는 수록경전의 제목, 함차, 저자사항과 주문의 제목에 이어 悉曇字行과 漢字音行을 병기시켰다. 권말에는 音義가 있으나 주로 音에 한하여 反切로 표기하였다.

둘째, 수록된 경전은 대장경의 천자문 함차에서 141번째 ‘賴’, 142번째 ‘及’, 147번째 ‘身’, 148번째 ‘髮’, 150번째 ‘大’函에 걸쳐 해당한 진언부분을 수록하였다.

셋째, 해당된 진언부분을 再雕大藏經과 비교하면 悉曇字의 부분은 재조본에 없으며 이는 당시에 통행되던 판본이나 필사본류를 저본으로 등재본을 만들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세분 사항으로 표제도 재조본과는 달리 축약형이 표현되어 있다.

넷째, 한자음 표기에 기입된 구절구분표시, 장단음을 비롯한 성조표시, 그밖의 聲韻에 관련된 표시 등이 있으며 이는 五大眞言의 고려본이나 조선본(한글병기)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섯째, 기록상 이 자료는 각종 사료에 나타난 『密教大藏』 90권에 해당하고 추가된 40권의 사본은 현재 확인되지 않는다. 이 90권을 찍었던 목판은 조선 세종 때까지 황해도 金沙寺의 眞言大藏經이란 이름으로 불리며 보관되고 있었다. 1401년 조선 태종 때는 이를 인출하여 궐내 사찰에 비치한 적이 있었으나 1423년 12월 일본의 요청으로 책판이 1424년 1월에 注華嚴經板과 함께 일본에 사급되었다.

여섯째, 본문 중 제9장에는 ‘白如刀’라 하여 각수명이 작게 양각으로 새겨져 있으나 재조대장경의 각수명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여러 형태적인 면과 대장경 함차와 내용비교 등을 통하여 이 밀교대장은 13세기 후반에 당시 통행하던 실담자본을 바탕으로 대장경의 함차순대로 편찬하여 90권의 목판본으로 새겨 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밖에 관련된 자료들을 통하여 고려 11세기부터 14세기 후반에 이르는 동안 陀羅尼類가 여러 차례 간행되었으며 단매물의 寶篋印陀羅尼로부터 50여 장에 이르는 五大眞言, 梵書惣持集, 曼荼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의식과 受持讀誦으로 유통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간 명칭으로만 알려졌던 『密教大藏』의 실물을 서지적으로 검토함으로써 13-14세기 고려 불교사에서 중심적 사상이었던 밀교의 영향이 집약된 총서 자료집으로서의 가치를 살피고자 하였다. 향후 이 자료들이 보충되면 다른 진언자료들과 한자음 표기의 대조, 悉曇字 표기의 비교 연구, 진언자료의 선택 및 수록 방법과 밀교사상에 대한 심층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 문헌>

[단행본]

- 戒 環. 『中國華嚴思想史 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6.
- 김종명. 『佛敎思想의 淵源』. 서울: 新亞出版社, 1999.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 불학연구소. 『진언·다라니 수행 입문』. 서울: 조계종출판사, 2008.
-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韓國密敎思想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86.
- 木村俊彦, 竹中智泰. 『禪宗의 陀羅尼』. 東京: 大東出版社, 2003.
-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서울특별시 2』.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 문화재청. 『한국의 사찰문화재: 전국사찰문화재일제조사 서울특별시 자료집』. 서울: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2013.
- 불교문화재연구소. 『안동 보광사 목조관음보살좌상』. 대전: 문화재청,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09.
- 서윤길. 『高麗密敎思想史研究』. 서울: 불광출판부, 1993.
- 松長有慶 著, 張益 譯. 『밀교경전 성립사론』. 서울: 불광출판부, 1993.
- 수덕사 근역성보관. 『至心歸命禮: 韓國의 佛腹藏 특별전』. 예산: 수덕사 근역성보관, 2004.
- 安啓賢. 『韓國佛敎思想史研究』. 서울: 東國大學校出版部, 1990.
- 안지원. 『고려의 국가 불교의례와 문화: 연등·팔관회와 제석도량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2005.
- 野口善敬. 『禪門陀羅尼の世界: 安穩への秘鍵』. 京都: 禪文化研究所, 2007.
- 온양민속박물관. 『1302年 阿彌陀佛服藏物의 調査研究』. 溫陽: 溫陽民俗博物館, 1991.
- 林光明 編修. 『(新編)大藏全呪』. 台北: 嘉豐出版社, 2001.

- 田久保周譽. 『梵字悉曇』. 東京: 平河出版社, 1981.
- 정태혁. 『밀교의 세계』. 서울: 고려원, 1996.
- 宗釋. 『밀교학 개론』. 서울: 운주사, 2002.
- 채운진. 『二十五種藏經目錄對照考釋』. 台北: 新文豐出版公司, 1983.
- 허일범. 『불교속의 밀교』. 서울: 진각종 해인행, 2000.
- 허일범. 『한국밀교의 상징세계』. 서울: 해인행, 2008.
- 허일범. 『한국의 진언문화』. 서울: 해인행, 2008.
- 허흥식. 『高麗佛敎史研究』. 서울: 一潮閣, 1986.
- 허흥식, 남권희, 김영숙, 권순정. 『高麗의 佛腹藏과 染織: 1302年 織造環境과 織物의 特性』. 서울: 계몽사, 1999.
- 홍윤식. 『한국불교의 밀교적 특색』. 서울: 만다라, 1995.

[논문]

- 남권희. “12世紀 刊行의 佛敎資料에 관한 研究.” 『書誌學研究』 第17輯(1999). 373-420.
- 문명대. “守國寺 高麗(1239년) 木阿彌陀佛坐像의 研究.” 『美術史學研究』 第255輯(2007). 35-65.
- 朴炳采. “眞言集悉曇章攷.” 『국어문학』 20(1979). 69-86.
- 박태화. “한국불교의 밀교경전 전래고.” 『韓國佛敎學』 제1호(1975). 45-62.
- 邊東明. “忠肅王의 密敎大藏 金字寫經.” 『歷史學報』 第184輯(2004. 12). 41-77.
- 水野俊平. “梵字의 한글 음사(音寫)에 대한 고찰: 《五大眞言》의 神妙章句大陀羅尼와 佛頂尊勝陀羅尼를 중심으로.” 『國語學』 第62輯(2011). 131-166.
- 안주호. “만연사본 <진언집(1777년)>의 표기법 연구.” 『국어국문학』 133(2003). 113-144.
- 안주호. “망월사본 <진언집>을 중심으로 한 진언표기의 기초적 연구.” 『국어교육』 109호(2002). 251-275.
- 안주호. “<석보상절>과 <월인석보>의 진언표기 연구.” 『韓國言語文學』 第51輯

(2003). 163-189.

안주호. “안심사본 <진언집>과 망월사본 <진언집>의 비교 연구.” 『배달말』 31호(2002). 175-196.

안주호. “<오대진언>에 나타난 표기의 특징 연구: 성암본과 상원사본을 중심으로.” 『한국어학』 25호(2004). 221-248.

안주호. “《眞言勸供・三壇施食文 諺解》의 진언표기방식 연구.” 『國語學』 제40집(2002). 89-112.

엄기표. “寶珠形 唵(om)字 圖像의 전개와 상징적 의미에 대한 試論.” 『선문화연구』 제14집(2013). 333-390.

呂建福. “고려 왕조의 기양불교와 동전한 밀교.” 『(社)韓國佛敎研究院・中國陝西師範大學 共同 國際學術大會 발표문: 한·중(中·韓) 불교교류와 西安九至十三世紀中韓交流』 (2006). 119-156.

우민섭. “범어 음역을 통해서 본 중세국어 음운.” 『韓國言語文學』 第39輯(1997). 87-109.

이태승, 안주호. “망월사본 <眞言集凡例>에 대한 연구.” 『한국어학』 제19집(2003). 207-227.